

기후불평등과 사회복지 : 동자동 쪽방촌 사례를 중심으로

2020.11

강준모
(특정주제연구자)

제 출 문

재단법인 숲과나눔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기후불평등과 사회복지: 동자동 쪽방촌 사례를 중심으로”의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1월 15일

연구 원 : 강준모(특정주제연구자)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재)숲과나눔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초록

연구원	강준모	구분	()박사후펠로우십 (○)특정주제연구자
연구제목	한글	기후불평등과 사회복지: 동자동 쪽방촌 사례를 중심으로	
	영문	Climate inequality and social work: A case study on Dongja-dong Jjokbang-chon	
연구기간	2019. 11. 15. ~ 2020. 10. 30.		
색인어	한글	기후 정의, 기후 불평등, 탄소발자국, 빈곤, 쪽방촌	
	영문	climate justice, climate inequality, carbon footprint, poverty, jjokbang-chon	

○ 결과보고서 요약

- 본 연구는 한국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밀집거주하고 있는 쪽방촌의 주민들의 삶을 통해 한국의 기후 불평등 현상을 탐색함.
- 방법론
 - 본 연구는 문화기술지적 연구로 서울역 쪽방촌이 있는 연구자가 동자동에서 1년간 현지 조사 (field work)를 수행하며 참여관찰, 인터뷰,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함.
- 쪽방촌 주민들의 탄소발자국
 - 쪽방촌 주민들의 탄소발자국은 3.84톤으로 대한민국 1인 평균인 12.11에 비해 1/3 수준임.
 - 탄소발자국 측정을 통해 쪽방주민들의 경제적 빈곤, 에너지 빈곤, 이동의 빈곤 등 빈곤의 상태를 다차원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음.
- 폭염에 대한 쪽방촌 주민들의 인식과 경험
 - 쪽방촌 주민들은 폭염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고 일상적인 골칫거리 정도로 받아드리고 있었음.
 - 쪽방촌 주민들에게는 일상이 재난이기에 여름, 겨울 등의 더위와 추위 그 자체가 재난이 아니라 이는 일상의 재난에 일부로 치부됨.
 - 이는 과거 살았던 주거경험으로 인한 요인과 현재 상태에 대한 적응과 체념을 보여줌.
 - 쪽방촌의 폭염은 느린 폭력으로 우리는 매일 벌어지는 일상의 취약성에 주목해야함.
- 쪽방촌의 기후재난에 대한 사회복지의 역할
 - 사회복지사들이 쪽방상담소를 물품나눔소라고 생각할 정도로 폭염과 한파에 대한 사회복지의 대응은 후원물품이 중심인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사들이 후원품 사업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표현할 만큼 이는 자원의 낭비적인 측면이 있음.

요 약 문

□ 연구의 필요성

-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탄소배출을 가장 적게 하는 사회의 취약계층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입는다는 점에서 기후변화는 불평등하다.
-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그린뉴딜과 같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한 노력은 매우 부족하다. 특히 기후변화가 노인, 아동, 빈곤층과 같은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들을 위한 대응 정책과 같은 기후불평등, 기후정의에 관한 이슈는 더욱더 주목받지 못해왔다.
- 이에 본 연구는 한국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밀집거주하고 있는 쪽방촌의 주민들의 삶을 통해 한국의 기후 불평등 현상을 탐구해보았다.

□ 연구질문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쪽방촌 주민들은 탄소발자국은 얼마나 되는가?
2. 쪽방촌 주민들은 폭염과 한파와 같은 재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경험하고 있는가?
3. 폭염과 한파와 같은 기후재난에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의 역할은 무엇인가?

□ 방법론

- 본 연구는 문화기술지적 연구(ethnographic research)로 서울역 쪽방촌이 있는 동자동에서 1년간 현지 조사 (field work)를 수행하였고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참여관찰, 인터뷰, 설문조사이다.
- 본 연구자는 2019년 9월 한 달 동안 사전 조사를 진행하여 현지조사를 수행할 현장을 선정하였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동자동 쪽방촌에서 거주하며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 본 연구자는 다양한 경로로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의 일상에 참여하고

관찰하기 위해 <서울역쪽방상담소>에서 봉사과 동자동의 주민자조조직인 <동자동사랑방>과 <사랑방주민마을협동회>에서 자원활동가로 활동했다. 또한, 교회와 카톨릭 종교기반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였고 마을자율방범대원으로도 활동하였다.

- 주민들 인터뷰는 참여관찰을 하며 친분을 맺은 주민들과 이를 매개로 만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식적, 비공식적인 인터뷰를 진행했다. 주민들과 약속을 잡고 녹음기를 틀고 진행한 공식적인 인터뷰는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였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재난(폭염, 한파, 코로나-19)을 주제로 집단표적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전국 9곳의 쪽방상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18명)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마지막으로 탄소발자국을 측정하기 위해 영국의 Carbon Footprint Ltd.에서 개발한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사용하여 쪽방 주민들의 탄소발자국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 교통수단 이용, 소비를 통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저렴쪽방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총 48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 쪽방촌 주민들의 탄소발자국

- 탄소발자국을 측정한 결과 서울역 쪽방촌의 거주하는 주민들의 일 년 평균 탄소배출량은 3.84 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탄소발자국인 12.11 톤 1인 가구 평균의 1/3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세부 항목 별로는 소비를 통한 탄소배출이 2.55 톤으로 가장 높았고, 에너지 사용 (1.14톤), 대중 교통이용 (0.15톤) 항목이 그 뒤를 이었다.
- 쪽방 주민들의 탄소배출의 비율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소비가 66%로 가장 많았고, 에너지사용이 30%, 대중교통이 4%로 나타났다. 쪽방주민들은 탄소발자국의 3가지 항목인 에너지 소비, 교통이용, 소비에서 모두 각 1인 가구의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쪽방주민들의 경제적 빈곤, 에너지 빈곤, 이동의 빈곤 상태를 살펴봄으로 단지 경제적 빈곤을 넘어 쪽방주민들이 겪는 빈곤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 쪽방 주민들의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은 서울 1인 가구에 비해서 각각

3배, 2.4배, 1.8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모두 에너지 소비에 제한이 없는 저렴쪽방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임을 고려하면 다른 쪽방 주민들의 에너지 소비는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소비항목을 통한 탄소발자국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식료품/외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46%이상으로 그들의 경제적 빈곤 상태를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으로 인한 탄소발자국의 차이는 거의 나지 않았으나 이를 통해 쪽방촌 주민들의 거의 이동하지 않고 거주지에만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는 단지 관계적인 측면을 넘어 이들이 사회적 배제상태임을 볼 수 있었다.

□ 폭염에 대한 쪽방촌 주민들의 인식과 경험

- 쪽방촌 주민들의 폭염을 일상에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 폭염이 쪽방촌 주민들에게 재난적인 위기일 것이라는 외부의 인식과는 달리 쪽방촌 주민들은 폭염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고 일상적인 골칫거리 정도로 받아드리고 있었다.
- 여름철 서울시의 실내 권고 온도보다 평균 5도 이상 높은 쪽방에 살면서도 주민들이 크게 개의치 않는 이유는 많은 이들이 거리 노숙의 경험이 있거나 과거 경험했던 주거환경이 쪽방과 별반 다르지 않아 상대적으로 이런 취약한 환경에 익숙해져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며 이에 익숙해지고 적응을 하고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체념을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 이런 상황을 빗대어 한 주민은 “일상이 재난”이라는 표현을 썼다. 즉, 일상이 재난이기에 여름, 겨울 등의 더위와 추위 그 자체가 재난이 아니라 이는 일상의 재난에 일부로 치부되는 것이다.
- Nixon (2011)의 느린 폭력이라는 개념은 쪽방촌의 일상의 재난에 가려져 비가시화 되어있는 폭염과 한파와 같은 재난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우리는 재난이라는 현상 자체 보다는 매일 벌어지는 일상의 취약성(everyday vulnerability)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쪽방촌의 기후재난에 대한 사회복지의 역할

- 연구 결과 쪽방상담소에서 폭염과 한파 기간 동안 쪽방촌의 주민들을 위한 지원은 후원물품이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름에는 선풍기와 같은 냉방용품, 겨울에는 이불과 같은 난방관련 물품 혹은 식료품이 담긴 재난구호키트를 후원받아 주민들에게 전달해주는 것이 현재 사회복지가 폭염과 한파와 같은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방식인 것이다.

-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과도한 후원품 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표현할 만큼 자원의 낭비적인 측면이 있었다.

- 취약한 주거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노력없이 후원물품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형태의 복지는 일시적인 대응책일뿐 생태복지가 추구하는 가치와는 멀어보였다.

- 장기적인 측면에서 쪽방상담소의 후원품 위주의 사업에 대한 재고해야할 것이다.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연 구 배 경	8
제1절 쪽방의 실태	8
제2절 쪽방 주민의 실태	10
제3장 쪽방 주민들의 탄소발자국	14
제1절 탄소발자국 개념	14
제2절 탄소발자국 측정 방식	16
제3절 조사 방법	16
제4절 연구 결과	21
제5절 논의	24
제4장 동자동 주민들의 폭염 재난에 대한 경험	34
제1절 들어가며	34
제2절 자료 수집 방법 및 분석	37
제3절 조사 결과	39
제4절 논의	49
제5장 폭염과 한파 사회복지의 역할	52
제1절 들어가며	52
제2절 조사방법	53
제3절 결과	54
제4절 논의	63
제6장 요약 및 결론	65
참고문헌	69

표 목 차

<표 3-4-1> 연구 참여자의 특성 (N=43)	22
<표 3-4-2> 연구참여자들의 탄소발자국 (N=43)	22
<표 5-3-1> 쪽방상담소 기능	54
<표 5-3-2> 쪽방상담소와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의 예산 대비 후원품 금액 비교	56

그림 목차

[그림 2-1-1] 청량리 쪽방 사진	9
[그림 3-4-1] 탄소발자국 항목별 비율 (N=48)	23
[그림 3-4-2] 동자동 주민(N=48)과 서울 1인 가구의 탄소발자국 비교	24
[그림 3-4-3] 동자동 주민(N=48) 과 전국/서울 평균 에너지 사용량 비교	26
[그림 3-4-4] 동자동 주민 D씨의 주거 환경 (남, 60세)	27
[그림 3-4-5] 동자동 주민 E씨의 주거 환경 (남, 62세)	28
[그림 3-4-6] 동자동 쪽방 내 안내문	29
[그림 4-3-1] 동자동 주민 화장실 및 세면대 예시	39
[그림 4-3-2] 동자동 주민 쪽방 실내 예시	40
[그림 5-3-1] 쪽방상담소 물품 나눔 현장	57
[그림 5-3-2] 쪽방주민의 방에 쌓인 선풍기들과 옥상에 버려진 선풍기들	59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과 같은 재난은 앞으로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IPCC, 2018). 최근 미국 Berkeley Earth (2019)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최근 4년은 1850년 이후 가장 더운 시기로 기록되었고 미국은 1960년대에 비해 폭염일 수가 40일이나 증가했다 (U.S. Global Research Program, 2019). 환경부와 기상청 (2014)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연평균 기온 역시 지난 수 십년 동안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또한, 이 보고서는 향후 20년 후 서울에서 폭염에 의한 사망자는 약 2배 이상 증가하고 폭염에 인한 국민들의 건강피해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후변화는 불평등하다.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는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이 대부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국가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이다. Oxfam (2015) 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 배출의 절반 이상은 상위 10%의 계층이 배출하는데 이는 전 세계 적으로 빈곤층에 해당하는 350억 명의 총배출량의 5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심지어 세계 상위 1%에 해당하는 계층은 하위 10%보다 평균적으로 175배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Oxfam, 2015).

기후 불평등은 비단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만의 차이는 아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 내에서도 계층별 탄소발자국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난다. 가령 Kennedy, Krahn, & Krogman (2013)는 캐나다의 상위 20%는 하위 20%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2.2배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탄소배출의 불평등과 더불어 폭염, 한파, 태풍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잦아지는 재난의 피해 역시 불평등하게 나타난다. 전 세계적으로 빈곤층은 탄소배출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경제적 피해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해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Human Rights Council, 2019). 이런 현상을 빚

대어 유엔 인권위원회는 과거 남아공의 인종분리정책에서 이름을 따 ‘기후 아파르트헤이트(climate apartheid)’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Human Rights Council, 2019). 즉, 기후변화로 인해 개인의 건강,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빈곤층이 겪게 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한 시스템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한 국가 내에서도 상위계층과 빈곤층이 경험하는 폭염과 같은 재난 이미 매우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상황을 Shonkoff, Morello-Frosch, Pastor & Sadd (2009)는 ‘기후 격차(climate gap)’ 현상이라고 명명했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8년은 한국 기후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한해로 기록되었다. 폭염 일수 역시 37.5일로 1973년 이후 가장 많았고 (행정안전부, 2018), 이로 인해 935명이 온열 질환을 앓았고 (행정안전부, 2018) 29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Haas,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게 현실이다. 최근 23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민간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평가,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 (CCPI) 201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은 ‘매우 부족’으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Burck, Hagen, Marten, Höhne, & Bals, 2019).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의 증가율은 1위, 석탄발전 비중은 4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꼴찌에서 2위로 최근에는 ‘기후악당’ 국가로 꼽히기까지 했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¹⁾ 특히 기후변화가 노인, 아동, 빈곤층과 같은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들을 위한 대응 정책은 부재하고 기후불평등, 기후격차 이슈는 더욱더 주목받지 못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밀집거주하고 있는 쪽방촌의 주민들의 삶을 통해 한국의 기후 불평등 현상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쪽방은 0.5평에서 2평 정도의 성인 한 사람이 잠만 잘 수 있는 정도의 매우 작은 방으로 공공임대주택, 비닐하우스촌, 지하셋방, 고시원 등과 함께 한국의 극

1) Kim (2011)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정보와 인식 수준은 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높은 축에 속하는 반면 행동의 의지를 나타내는 항목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층이 살고 있는 주거 형태이다 (이소정, 2006; 최은영 외, 2018). ‘지옥고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 아래 쪽방’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쪽방은 현재 존재하는 가장 열악한 주거형태이다. 특히 쪽방은 폭염과 한파에 취약하기 때문에 쪽방촌은 매년 여름철과 겨울철이 되면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 매년 반복되는 사회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쪽방촌에서 더위 혹은 추위, 더 나아가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법적으로 노숙인에 해당하는 쪽방촌 주민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특히나 폭염, 대기오염, 태풍/홍수, 전염병과 같이 기후변화와 연관성이 있는 재난에 특히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Ramin & Svododa, 2009). 노숙인들은 이미 만성질환, 흡연, 기저질환, 정신질환과 같은 개인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극한 기후와 같은 재난에 특히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폭염과 한파와 같은 극한 기후는 열악하고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사는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취약성을 더욱 악화 시킬 뿐만 아니라 (Red Crosss, 2016) 알콜 / 약물 의존도를 높이고 (Pendrey, Carey, & Stanley, 2013) 영양부족 상태를 악화 (Walters & Gaillard, 2014)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기후변화 대책과 대응은 노숙인 집단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지만 (Cusack, et al., 2013) 아직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쪽방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봄으로 실제 취약계층이 기후변화에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것이다. 둘째 쪽방촌 주민들은 한파와 폭염과 같은 재난적인 기후현상을 일상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는지를 탐구를 하고자 한다. 셋째 현재 쪽방촌 주민들이 폭염과 한파와 같은 기후재난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역할에 대해서 탐색해볼 것이다.

본 연구의 두 가지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쪽방촌 주민들은 탄소발자국은 얼마나 되는가?
2. 쪽방촌 주민들은 폭염과 한파와 같은 재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경험하고 있는가?
3. 폭염과 한파와 같은 기후재난에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이 보고서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본 장인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 질문과 연구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인 쪽방촌에 대한 주요 실태 및 현황에 대해 간략히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연구질문 1에 대한 연구결과로, 쪽방촌 주민들의 탄소발자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제시하였다. 제 4장에서는 폭염과 한파와 같은 재난에 대한 쪽방촌 주민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고 그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질문 2). 제 5 장에서는 폭염과 한파를 중심으로 한 기후 재난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대응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역할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질문 3).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종합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화기술지적 연구 (ethnographic research)²⁾로 본 연구가 사용한 핵심적인 연구방법은 현지 조사 (field work)를 기반으로 한 참여관찰 (participant observation)이다. 연구자는 2019년 9월 한 달 동안 사전 조사를 진행하였다. 사전 조사는 서울의 3개 쪽방촌을 중심으로 지역조사, 쪽방상담소의 사회복지사와의 면담, 동자동 쪽방촌의 주민자조조직 주민리더, 활동가와 국내 홈리스 관련 단체의 활동가 면담, 그리고 2곳의 쪽방촌의 주민들과의 대화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약 1년간의 현지 조사를 할 현장을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중순까지, 약 1년 동안 동자동 쪽방촌에서 현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동자동 쪽방촌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11번 출구 뒤편에 있고 서울역 쪽방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2019 서울시 실태조사에 의하면 동자동 쪽방촌은 70개의 건물에 1,184개의 쪽방으로 이곳에는 1,04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쪽방촌이다.

2)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문화기술지적 연구(ethnographic research)이지만 문화기술지 (ethnography)가 아님을 밝힌다. 현지조사와 참여관찰을 바탕으로 한 점에서 연구는 문화기술지의 특성을 띠고 있지만 연구 보고서라는 특성 상 분석과 글쓰기의 단계에서 문화기술지의 핵심인 중층적 기술 (thick description)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이론과 사고를 통해 결합된 해석적 연구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 참여관찰

참여관찰을 중심으로 현지 조사를 한 본 연구의 특성상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그들과의 라포를 형성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주제가 폭염과 한파인 만큼 연구자가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고 경험적으로 해석하는 과정 역시 연구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연구자는 참여관찰을 위해 현지 조사 기간 동안 동자동 쪽방촌에서 거주하며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자는 11월부터 3월 초까지 동자동 여인숙 골목에 있는 건물의 쪽방에 거주하였고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역 쪽방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쪽방에서 거주하였다.

또한 동자동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에 함께하고 주민들을 다양한 경로로 만나기 위해 동자동 쪽방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기관에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했다. 가장 핵심적으로 활동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인 서울시립 <서울역 쪽방상담소>과 동자동 쪽방촌 내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조조직³⁾ <동자동 사랑방>과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이다. 그 외에도 두 개의 종교 기반 단체에서 봉사자로 참여하며 주민들을 만났고 동자동 주민자율방범대에도 대원으로 활동했다.

<서울역 쪽방상담소>에서는 주민봉사대에 일원으로 활동하며 물품나눔 행사 등에 참여하였고 그 외에도 주민 및 건물 실태조사, 물품나눔 행사, 간호사 업무 보조, 자활근무자 회의 참관 및 회의록 정리, 외부 봉사자 안내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하였다. 또한, 5월부터 10월까지 매 주 직원회의에 참여하였다.

<동자동 사랑방>과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에서는 주민활동가로 활동하며 동자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점심 식사 사업인 식도락을 중심으로 일을 했고, 그 외에도 주민장례, 이웃 이사/방청소 도움, 선반제작 사업, 마을 청소, 텃밭, 사진 모임, 그리고 외부 연대 사업 등에 참여하였다. 또한 <동자동 사랑방> 운영위원회, <홈리스주거팀> 월례회의에 참여하였고, 2월부터 10월까지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주간 이사회회의에 매주 참여하였다.

3) <동자동 사랑방>은 2008년 쪽방촌 주민들의 단합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상임간사 1명과 주민활동가로 이루어진 주민자조조직이다.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는 <동자동 사랑방>에서 활동하던 주민활동가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받고 설립하여 지금은 마을은행이자 소액대출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두 개의 조직은 독립적인 예산으로 운영되고 각 조직에 상임활동가가 1명씩 있지만 두 조직은 같은 사무실을 쓰고 활동하는 주민활동가들은 거의 겹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두 단체를 하나로 인식하고 통틀어서 “사랑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지조사기간 동안 동자동의 대표적인 기관인 <서울역쪽방상담소>와 두 곳의 주민자조조직을 베이스캠프로 삼아 일을 없을 때는 앉을 때는 두 기관의 사무실에서 머무르며 주민들의 일상에 함께하고 참여관찰을 수행했다. 한편, 동자동에는 두 조직 이외에도 다수의 기관들(종교기관, 종교기반 단체, 지역복지관, 노숙인시설 등)이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다수의 기독교 교회, 카톨릭, 원불교 등 다수의 종교기관 및 종교기반 단체들로 연구자는 이중 한 곳의 기독교 교회와 카톨릭 기반 단체에서 봉사자로 활동하였다. 봉사자로 참여한 교회는 십여년 이상 서울역 거리 노숙인들과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소규모의 교회로 이 교회는 <서울역쪽방상담소>와 주민자조조직과도 관계를 맺고 있고 매주 일요일 동자동 쪽방촌의 중심이 되는 공원에서 야외 예배와 배식을 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 교회에서 12월부터 6월까지 매 요리와 배식 봉사를 했고 공원 예배에서 참여관찰을 수행했다. 또한 1월부터 6월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동자동 주민을 200여명 정도를 대상으로 주 3일 점심 도시락 배달을 하는 카톨릭 기반 단체에서 봉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동자동 주민자율방범대(새꿈공원자율방범대)의 대원으로 참여하였다. 자율방범대는 용산경찰서 용중지구대 소속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범죄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봉사단체로 방범대 대원의 역할은 매주 1회 3명의 조원들과 마을 도보 순찰을 하였고 매월 월례 회의와 회식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관찰은 체계적으로 행아웃 (systematic hanging out) 하는 것이라는 관점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들과 친분을 쌓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기관들을 통해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진행한 참여관찰도 중요했지만 어찌 보면 연구자가 주민들과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시장 나들이를 가고 여행을 가고 하는 등의 일상을 공유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나. 인터뷰

인터뷰 역시 본 연구의 핵심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었다. 인터뷰는 크게 동자동 주민들과 동자동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서 근무하는 현장전문가 (사회복지사, 활동가, 공무원 등)를 대상으로 했다.

주민들과의 대화와 인터뷰는 참여관찰을 하면서 함께하였던 여러 기관들을 통해 관계를 쌓은 주민들과 이를 매개로 만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식적 비공식적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현지조사 초반에는 주민들과의 친분과 라포 형성을 목표로 하여 주로 비공식적이고 불규칙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후 연구 주제와 질문을 구체화 시켜나가며 현지조사 후반부에 공식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공식 인터뷰는 주민들과 약속을 잡고 녹음기를 틀고 진행을 했고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였다. 또한 두 차례 집단표적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집단표적인터뷰는 두 차례에 걸쳐 연구주제인 재난(폭염, 한파, 코로나-19)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였다.

현장전문가 인터뷰는 2월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2월 서울역쪽방상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구에 대한 소개와 발표를 하고 2월부터 4월까지 서울역쪽방상담소의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5월부터 8월까지 전국에 있는 10개의 쪽방상담소 중 9기관을 방문하여 각 기관의 현장소개를 받은 후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외에도 참여관찰을 진행한 기관들의 활동가와 직원들,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다. 설문조사

쪽방촌 주민들의 탄소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에 에너지 사용, 개인 소비, 1주일 식단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있어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구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연구자가 주민들과 관계를 쌓고 라포를 형성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설문지는 현지조사 후반부인 8월에 진행하였다. 또한, 탄소발자국 설문과 더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인터뷰 질문을 제작하여 설문조사 후 인터뷰 역시 부분적으로 진행하였다.

제 2 장 연 구 배 경

제1절 쪽방의 실태

쪽방이란 “일정한 보증금 없이 월세 또는 일세를 지불하는 0.5 ~ 2평 내외의 면적으로 취사·세면·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는 주거 공간”이다 (이태진 외, 2017, p.58). 전국쪽방상담소 협의회 (2009)는 최저주거기준, 점유 형태, 공용 설비, 가구와 경제적 상태를 반영하여 쪽방을 “최저주거기준 미만의 주택 이외의 거처로서, 보증금 없이 일세, 월세, 사글세를 지불하는, 부대시설(세면, 취사, 화장실 등)이 없는 방으로서 단신, 가족, 취약,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며 수급권자나 비정기적인 일자리와 건설일용직과 같은 이동이 강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저렴한 주거 공간”으로 정의한다 (이현주 & 엄명용, 2013, p.147 에서 재인용).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쪽방들도 제법 존재한다. 가령 보증금이 존재하는 쪽방도 있고 방 내부에 취사시설이 있기도 하다. 이런 방들도 모두 최저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므로 쪽방은 최소 주거기준 면적인 14㎡보다 작고 적정한 주거로의 필수적인 설비(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역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와 같은 안전성·쾌적성 역시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 형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2016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민들은 화장실·취사실·세탁실 등 이용 시설에 대한 불편함, 냉난방이 없거나 잘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채광·통풍 등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쪽방 생활의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고 있다 (이태진 외, 2017).

쪽방촌은 과거 주로 도시의 교통 중심지⁴⁾를 중심으로 생겨난 집창촌이나 여인숙이 밀집되어 있던 지역이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도심의 재정비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현재는 한국의 마지막 남은 빈민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성규, 2000; 이소정, 2006; 이현주 & 엄명용, 2013). 현재 전국 5개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에 걸쳐 총 10곳의 대규모 쪽방촌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10개의 쪽방촌에는 각각 정

4)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서울의 쪽방촌 5곳 모두 과거 교통 중심지인 1호선 (영등포, 서울역 (2곳), 종로3가역, 동묘역)의 4개 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부 위탁 사회복지시설인 쪽방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다. 2016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0개의 쪽방촌에 이곳에 총 5958가구, 619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진 외, 2017). 하지만 국가에서 규정한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통계로 실제 존재하는 쪽방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권위원회와 도시연구소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쪽방상담소가 위치한 지역에서도 유사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사례가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쪽방으로 등록되기를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 쪽방에 사는 주민들의 숫자는 과소 산정되었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 (최은영 외, 2018). 더 나아가 이 조사는 5개 광역 도시 외에도 전국적으로 쪽방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실제 서울에는 5개의 쪽방촌 외에도 가리봉동과 청량리에도 다수의 쪽방이 밀집되어 있지만 이는 쪽방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2018)가 진행한 비적정 주거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의 20.1%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박은영 외, 2018)의 조사에서는 76.4%의 참여자들은 쪽방에 거주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는 공식적인 거처 유형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더 많은 쪽방이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⁵⁾.



[그림2-1-1] 청량리 쪽방 사진

5) 정부로부터 인증 받지 못한 쪽방촌에 살거나 사회 곳곳이 흩어져 존재하는 쪽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쪽방 주민의 실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노숙인은 ‘길이나 공원 등지에서 한뼘잠을 자는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노숙인을 떠올리면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 (rough sleepers) 혹은 노숙인 쉼터와 같은 시설에서 임시로 잠을 자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제한적인 해석이다 (Cohen, 1999). 실제 노숙(露宿)의 어원을 보면 路(길 로)자가 아닌 露(이슬 로)자를 사용하는데 露(이슬 로)는 雨(비 우)와 路(길 로)를 합친 글자로 ‘이슬, 津液(진액), 고달프다, 젖다, 허물어지다, 부서지다’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노숙인이란 좁은 의미에서 길에서 잠을 자는 사람을 뜻하고 넓은 의미에서 열악한 상태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처럼 2018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의 인권전문가이자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는 레일라니 파르하는 2019년 보고서에서 쪽방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기간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하게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쪽방주민들 역시 노숙인의 범주에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UN Human Rights Council, 2019).

국내법상으로도 쪽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노숙인으로 분류된다. 쪽방은 법적으로 고시원, 여관, 여인숙,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PC방/만화방/찜질방)와 함께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국가의 행정명령인 최저주거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노숙인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2조는 노숙인을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쪽방촌 주민들은 세 번째 항목에 해당한다 (이태진 외, 2017; 최은영 외, 2018).

이처럼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노숙인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쪽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길거리 노숙인과 생활 영역이 겹쳐있을 뿐만 아니라 쪽방과 거리 노숙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모두 빈곤, 주거이기 때문이다. 또한 쪽방이 한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취약한 주거 형태라는 점에서 쪽방은 밖에서 잠을 자는 거리 노숙인들에게는 임시로 머물거나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의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빈곤

해진 사람들에게는 밖에서 잠을 자는 노숙인 생활을 방지하는 마지막 ‘그물망’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조문영 외, 2019).

서울의 5개 쪽방촌에 살고 있는 2,9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2019년 서울시 실태조사를 통해 쪽방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⁶⁾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2019).

주민들의 성별은 남성이 87%, 여성이 13%로 대부분 주민은 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거주하는 비율이 90%로 거의 대부분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는 30대 이하가 1.5%, 40대가 8.8%, 50대가 29.3%, 60대가 36%, 70세 이상이 24.3%로 과반수 이상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⁷⁾ 최종학력 수준은 무학이 15.1%, 초졸이 28.2%, 중졸이 24.2%, 고졸이 26.5%, 대졸이상이 4.9%이다. 이는 2015년 인구 총조사 기준 60~64세의 교육수준⁸⁾에 비해 무학의 비율이 높고, 고졸과 학사 이상이 낮은 것으로 교육수준은 상대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쪽방촌 주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보면 일반 수급자가 67%, 조건부수급자가 6%로 총 74%가 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비수급빈곤⁹⁾은 18%, 차상위 계층은 3%, 기타는 6%로 나타났다. 쪽방 주민들의 수입의 75%는 정부 보조금인 것으로 나타났고 22%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고 3%는 그때그때 다르다고 대답하였다. 근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주민은 87%이고 7%는 일당잡부, 3%는 특별자활근로, 3%는 공공근로라고 대답을 했다. 평균 소득은 71.4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략적으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친 것과 유사한 금액이다. 즉, 93%의 주민은 정부보조금 혹은 정부일자리 사업을 통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쪽방촌의 살고 있는 주민들은 최하위 소득계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6) 본 연구에서 쪽방주민은 ‘쪽방상당소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7) 실제 홈리스에 관한 연구는 홈리스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의 신체적 나이는 그리지 않은 사람들보다 10살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를 포함하면 90% 이상의 주민들은 고령의 노인이라고도 생각해볼 수 있다.
8) 2015년 인구총조사 기준 60~64세의 학력은 무학 3.1%, 초졸 21.5%, 중졸 23.1%, 고졸 35.8%, 학사 이상이 16.5%로 나타났다.
9) 비수급 빈곤이라고 밝힌 주민들은 부양의무제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되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가령 현지 조사를 통해 만난 김○○님(여, 80대)의 경우 며느리와 동일으로 인해 집에서 나와 동자동에 산지 10년이 넘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해 기초노령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또 다른 주민 박○○님(여, 70대) 역시 기초노령연금으로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명의도용을 당해 본인소유의 자산이 있어 소득인정액이 산정되어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주민들 중 73%가 건강이 좋지 못해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결과는 쪽방촌에 주민들의 매우 좋지 않은 건강상태를 보여준다. 주민들의 57%는 본인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느끼고 있었고 83.9%는 평소에 앓고 있는 질병이 있다고 대답을 했고 주민들 중 38%는 장애가 있다고 대답을 했다. 선행 연구들도 쪽방 주민들의 좋지 않은 건강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동자동 쪽방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권에 대해 연구한 손정인 (2013)의 연구에 따르면 쪽방 주민들의 구강 상태, 영양 상태, 정신보건 상태 모두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면 주민들 중 74%는 연락할 사람이 거의 없다고 밝혔고 가족유무에 대한 항목에서 33%는 가족이 없다고 대답하였고 30%는 가족이 있다고 대답하였지만 37%는 응답자체를 거절하였다. 또한 57%는 믿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의 수가 전혀 없다고 대답을 했다. 즉, 대부분의 주민들은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그 쪽방촌 내부에서도 사회적 관계들은 제한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쪽방촌 주민들은 대부분 사회와 단절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경험을 탐색한 연구들 역시 쪽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단절, 고립, 고독함 (권지성, 2008; 권지성&한가영, 2008; 허소영; 2010; 이현주&안기덕, 2013; 정여주&김정득, 2013; 황세인, 2015; 임승자, 2019)을 조명한다. 가령, 남성 독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허소영 (2010)에 따르면 쪽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과 단절되고 하루짜리 술친구에 의존하며 마음 들 곳이 없어 외로운 신세이자 외로움을 안고 살아간다고 밝히고 있다. 황세인 (2015) 역시 쪽방주민들이 쪽방으로 오기까지 가족, 주거, 고용 및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왔으며 혼자인 삶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¹⁰⁾

요약하면 쪽방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남성이고, 혼자 살고 있으며, 교육수준은 낮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쪽방촌의 주거환경 혹은 주민들의 생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재난과 같은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 연구는 부재하다. 예외적으로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서 폭염과 쪽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 연구는 서울시 돈의동 쪽방촌에 거

10) 정택진 (2020)은 쪽방촌 주민들이 사회적 관계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는 쪽방촌 주민들의 사회적 단절을 강조하거나 이와 반대로 쪽방촌 내에서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양극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라는 주민들의 인식적인 측면을 넘어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 사회적 관계의 형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하여 여름철 폭염 노출 실태와 폭염 시기의 건강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쪽방촌 5곳 모두 서울에서 열 환경에 최고로 취약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염기간동안 쪽방의 실내는 하루 종일 고온을 유지했고 밤에도 수면이 불편할 정도의 온도를 유지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6). 2차 조사에서는 2010년에 비해서 폭염 경보 및 폭염주의보에 대한인식도가 증가하였지만 거동이 불편하고 나이가 많은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폭염 쉼터와 같은 일시적인 제도 이상의 건강피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기후변화, 폭염에 관한 주제를 갖고 취약계층인 쪽방주민들을 대상으로 연구들 진행했다는 점과, 폭염이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에 대해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폭염에 대한 경험보다는 온도에 따라 주민들의 체온, 혈압 등 건강상태의 변화를 측정해보고자 한 준실험연구에 가깝고 주민들의 생각을 담은 설문지역시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폭염에 관한 주민들의 경험을 탐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쪽방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폭염, 한파, 태풍과 같은 이상 기후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으며, 그들을 도울 제도와 지원이 있는지, 더 나아가 개선점은 무엇인지 등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설문지와 같은 실태조사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쪽방촌 주민들이 탄소발자국 측정을 통해 빈곤층의 기후변화에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고 동시에 이들이 폭염과 한파와 같은 기후변화로 초래되는 재난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제 3 장 쪽방 주민들의 탄소발자국

제1절 탄소발자국 개념

탄소발자국은 사회에서 개인 또는 조직의 생산과 소비활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의 총량을 일컫는다 (Wiedmann & Minx, 2007). 탄소발자국은 개인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연료, 전기, 용품 등에서 배출되는 혹은 기업의 생산 활동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을 정량화하고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주로 행위자의 실천을 통한 탄소배출 줄이기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아직까지 개인이나 조직의 탄소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있어 이론적, 기술적인 제한이 있지만 (Wiedmann & Minx, 2007) 탄소발자국은 개인, 기업, 국가 등의 단위에서 기후변화 어느 정도 기여하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널리 인식되고 사용되고 있다 (Pandey, Agrawal, & Pandey, 2010). 탄소발자국의 장점은 인간의 생활과 소비가 기후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량화해서 보여줄 수 있고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세부적인 요인을 규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Pandey, Agrawal, & Pandey, 2010). 또한 개인의 영역에서도 일상생활과 소비가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연관지어 볼 수 있는 시각적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탄소발자국은 유의미한 교육적 도구이다 (Fuller, 2017). 최근 들어 전 세계 많은 대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고 국내에서도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통해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등 국가별 1인당 탄소배출량 등과 같은 지표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고 보다 정확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발자국에 대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기후변화의 정치적, 구조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시킨다는 점이다. 즉, 탄소발자국은 기후위기의 구조적인 원인을 숨기고 이를 개인의 영역으로 환원시킨다. 예를 들어 VYVE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은 개인이 이동하면서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이를 차감하기 위한 친환경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결제를 독려한다 (Yoder, 2020). 이는 탄소발자국 사용의 나쁜 예로 아마도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기후변화는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의 열쇠는

개인에게 있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 탄소배출의 70% 이상을 단 100개의 기업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Climate Accountability Institute의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VYVE와 같은 탄소발자국 계산기의 사용은 가진 자들은 돈을 내고 기후변화에 기여한다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면죄부를 부여받는 동시에 기부를 통해 남을 돕는다는 느낌까지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을 심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접근에 기인한다.¹¹⁾

물론 탄소발자국이 문제의 해결을 개인의 영역에 국한시킨다는 비판은 일부 유효하지만 Paterson and Stripple (2010)은 구조적 책임에서 개인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즉, 기후변화와 같은 다층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정치적 행위가 중요하고 이 역시 개인의 선택 내에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개인의 일상적 실천에는 역사적 구조적 맥락이 있지만 탄소배출의 지분이 많은 다국적 기업만 망하면 된다는 식의 접근 역시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Paterson & Stripple, 2010). 이에 Fuller (2017) 와 같은 학자는 탄소발자국 개념이 탄소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와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 환원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실천적 변화를 촉구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Paterson and Stripple (2010) 역시 탄소발자국이라는 정량적인 수치를 계산해 낸 후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 제기되는 비판점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탄소발자국은 일반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국민1인당 탄소배출을 측정하여 국가별로 비교하여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Fuller (2017)는 이런 방식이 국가 내, 도시 내 탄소배출의 불평등의 문제를 간과한다고 지적한다. 그런 점에서 홍콩의 저소득 지역의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탄소발자국 측정을 통해 탄소배출 책임을 분배 정의적 관점에서 탐색한 Fuller (2017)의 연구는 탄소발자국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고 본 연구 역시 이런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11) VYVE 어플에서는 개인의 이동거리를 통해 배출된 탄소발자국을 VYVE 한다고 표현하며 VYVE를 동사로 사용한다. 그리고 그 밑에는 배출한 탄소발자국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지불할 금액이 표시된다.

제2절 탄소발자국 측정 방식

탄소배출을 측정을 위해서는 한 상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과정을 살펴 보는데 이를 Life Cycle Analysis/Assessment (LCA) 라고 한다. 즉, 탄소발자국은 이론적으로 한 상품이 원자재부터 포장, 유통, 소비, 처분되는 모든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을 규명하고 이를 측정하는데 이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Pandey, Agrawal, & Pandey, 2010).

상품의 LCA를 측정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접근이 있다. 첫 번째 접근은 미시적인 것에서부터 거시적인 것으로 측정의 범위를 확장하여 탄소배출을 상향식으로 측정하는 Process Analysis (PA)이다. 일반적으로 PA는 한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규명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PA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저감을 할 수 있는 세세한 항목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가령 한 기업의 특정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발자국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방식이다. 하지만 측정 측정 주체가 복잡해질수록 (예, 가구, 기업, 국가) 포함시켜야할 항목의 범위를 규정하는 게 어려워지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접근은 Environmental Input-Output (EIO) Analysis로 이는 경제학의 투입-산출방식으로 탄소배출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구, 산업, 국가 등의 특정 단위에서 합의된 항목들의 탄소 배출공식을 통해 총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을 계산한다. EIO 방식은 PA 방식에 비해 세세한 항목을 포함시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주체들이 배출하는 탄소배출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이 두 방식의 장점을 결합하려는 Hybrid-EIO-LCA 방식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EIO 방식을 통해 가구, 사업체, 국가, 특정 소득계층에 속한 시민 등의 특정 집단의 탄소 배출을 측정하는 것이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Wiedmann & Minx, 2007).

제3절 조사 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 자료는 2020년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시 동자동 쪽방촌

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했다. 표집방식은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으로 서울역 쪽방상담소에서 운영하는 4개의 저렴쪽방¹²⁾ 건물에 사는 98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목적표집을 한 이유에 에너지 사용 자료의 수집의 접근성과 쪽방촌 주민들의 생활양식의 가변성이 낮다고 판단해서이다. 일반적으로 쪽방은 건물주가 직접 관리를 하거나 관리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쪽방을 운영하거나 건물주가 주민을 관리인으로 고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동자동 쪽방촌의 경우 서울의 다른 쪽방촌에 비해 건물주가 거주하거나 관리인이 건물에 직접 거주하며 밀접하게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건물 에너지 사용에 관한 고지서를 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저렴쪽방의 경우 서울시립 서울역 쪽방상담소가 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어 기관의 협조를 받아 2019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저렴쪽방 4개의 건물의 에너지(전기, 가스, 수도) 총 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설문조사는 두 명의 연구 조사원과 함께 진행하였다. 연구 조사원은 본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하며 밀접한 관계를 맺은 주민들 중 저렴 쪽방에 거주하고 있는 두 명의 주민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에 앞서 연구조사원에게 연구의 취지, 설문지 내용, 조사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두 명의 연구조사원이 각각 10명 씩 면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설문조사 참여 전, 연구의 목적과 내용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후 연구에 참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고 진행했다(201906099).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참여자의 경우, 연구 조사원이 모든 문항을 직접 읽어주고 기입을 도와주었다. 최종적으로 저렴쪽방에 사는 98명 주민들 중 총 48명의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수거된 설문지 48부가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다.

2. 탄소발자국 측정 도구

현재 다양한 탄소발자국 계산기가 있는데 대부분의 탄소발자국 계산기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개인 혹은 기업이 세부 항목을 입력하면 특정 기간 동안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을 보여준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EIO 방식은 측정

12) 서울시에 따르면 저렴쪽방 사업은 “매년 인상되는 쪽방 월세의 인상 억제 또는 인하 유도를 위해 기존 쪽방을 임차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저렴쪽방은 저렴한 임대료 뿐만 아니라 관리비를 따로 받지 않고 주민들에게 전기,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는 항목에 따라 그리고 계측계수에 따라 계산되는 결과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사용하느냐 따라 결과에 큰 차이를 보여 주기도 한다.

본 연구는 영국의 Carbon Footprint Ltd.에서 개발한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사용하여 쪽방 주민들의 탄소발자국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탄소발자국 계산기는 31개의 온라인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분석하여 측정 항목의 범위의 다양성과 사용자의 사용 간편성을 평가한 Mulrow, Machaj, Deanes, and Derrible (2018)의 연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내에도 한국 기후환경 네트워크, 산림청, 여러 지방정부 기관 등에서 공개한 탄소발자국 계산기가 여럿 있지만 측정 항목이 제한적이고 측정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과 같이 계절에 영향을 받는 항목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환경부가 사용하는 한국 기후환경 네트워크의 탄소발자국이 한국의 대표적인 탄소발자국 계산기인데 측정 항목은 에너지 사용 (전기, 가스, 수도)과 교통의 경우 대중교통 항목은 없고 개인 승용차 사용으로만 계산 가능하다. 이에 비해 Carbon Footprint Ltd.의 탄소발자국 계산기는 개인의 에너지 사용 (전기, 가스)과 교통 수단 이용 (대중교통, 비행기, 자동차, 오토바이) 항목에 대중교통을 포함하고 있고, 개인의 소비활동에 따른 탄소발자국 역시 측정할 수 있어 측정 항목이 다양하다 (설문지 참고). 소비 항목의 경우 탄소배출의 계측계수가 영국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한계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내 탄소발자국 계산기보다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가. Carbon Footprint Ltd. 계산기

Carbon Footprint Ltd. 의 탄소발자국 계산기는 다음 6가지 항목을 측정한다. 1) 가구 에너지 소비 2) 비행기 3) 자가용 4) 오토바이 5) 대중교통 6) 소비

이 중 비행기, 오토바이는 제외하였다. 비행기¹³⁾의 경우 비교군으로 설정된 서울 1인가구의 지난 1년간 비행기 이용에 대한 정보를 추정하기 어려웠고 교통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13) 설문 참여자 48명 중 3명이 지난 1년간 비행기를 이용을 했다고 응답하였는데 3명 모두 서울역 쪽 방상담소가 KT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주민봉사단 힐링캠프에 참여한 것이었다.

나. 가구 에너지 소비

Carbon Footprint Ltd.의 탄소발자국 계산기의 가정용 에너지 연료 측정 항목에는 전기 (electricity), 천연 가스 (Natural gas), 난방유 (Heating oil), 석탄 (coal), LPG 가스 (LPG), 프로판 (Propane), 나무 (Wooden pallet)가 포함된다.

가구 에너지의 사용의 경우 계절별 이용 편차가 크기 때문에 1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저렴쪽방의 경우 전기와 천연가스만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kWh/년)와 천연 가스(kWh/년)만 설문지에 포함되었다. 전기 사용은 국가별 발전용 연료의 구성에 따라 공고한 탄소배출계수를 입력하여 탄소배출량이 계산되어 한국의 전기 탄소배출계수인 0.469 kgCO₂e/kWh를 사용하였다.

가구 에너지 사용의 경우 서울 시민의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전기사용은 2019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발간한 Kepco in Brief에 나온 5135 (kWh/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천연가스는 1년 도시가스 서울 공공데이터의 서울시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통계를 이용하였다. 2018년 서울의 1년 도시가스 총 이용량은 4,353,000 toe(Tonnage of Oil Equivalent)으로 이를 50,625,390,000 kWh로 변형하여 2018년 서울의 인구수인 9,704,546로 나누어 1인당 도시가스 이용량 (5216kWh)을 사용하여 탄소발자국을 계산했다.

다. 자가용 승용차

Carbon Footprint Ltd. 의 탄소발자국 계산기의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1년 동안 차가 주행한 총 거리(km/년)를 통해 탄소발자국을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군의 자동차의 연료 효율은 휘발류 차량의 평균 연료 효율 (174.3 g/km)을 사용하여 탄소발자국을 계산했다. 1년 주행 거리는 2015년 교통수단 이용실태조사의 자가용승용차연간 수송실적에서 서울의 자가용 당 1년 주행거리 13,892.3인-km/대를 사용하였다.

라. 대중교통

Carbon Footprint Ltd.의 탄소발자국 계산기의 대중교통 이용 항목에는 버스(bus), 고속버스(coach), 통근열차(local or commuter train), 트램

(tram), 기차(long distance train), 지하철(subway), 택시(taxi)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통근열차 (local or commuter train)과 트램 (tram)을 제외시켰다. 버스, 고속버스, 기차, 지하철, 택시는 1년 동안 이용한 총 거리(km/년)를 사용하여 탄소발자국을 계산했다. 설문 제작시 대중교통을 이용한 총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버스, 지하철, 택시의 경우 일주일 평균 이용시간을 물었고 그 값을 정차 시 소요되는 시간을 운행시간에 포함하여 반영한 표정속도로 곱해 일년간 이동거리를 계산하였다. 버스와 지하철의 표정속도는 각각 19km/hr, 31.2km/hr로 계산하였다. 고속버스와 기차의 경우 이용 빈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일 년 평균 이용시간을 물었고 목적지를 함께 물어서 직접 거주지에서 총 거리를 계산하여 합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의 비교군은 교통 수단별 총 이용량에 서울인구를 나눈 것으로 설정하였다. 비교데이터는 2015년 <교통수단 이용실태조사>의 지역별 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수송실적 (백만인-km)을 사용하였다. 서울의 연간 버스, 지하철, 택시 수송 실적은 각각 14512.4 백만인-km, 23772.4 백만인-km, 2311.6 백만인-km으로 나타났다. 단, 기차의 경우 서울 지역 데이터가 없어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하였고 23564 백만인-km으로 나타났고 이를 해당년도 전국 인구수로 나누어 462-km로 계산했다.

마. 소비

Carbon Footprint Ltd.의 탄소발자국 계산기의 소비 항목에는 의약품 (Pharmaceuticals), 옷/신발 (Clothes, textiles and shoes), 책/신문 (Paper based products (e.g. books, magazines, newspapers), 컴퓨터 외 (Computers and IT equipment), 전자기기 (Television, radio and phone (equipment)), 자동차/오토바이 (연료비 제외) (Motor vehicles [not including fuel costs]), 가구 및 그 외 제조품 (Furniture and other manufactured goods), 호텔/외식/술집 외 (Hotels, restaurants, and pubs etc.), 전화요금 (Telephone, mobile/cell phone call costs), 은행 및 대출 (Banking and finance [mortgage and loan interest payments]), 보험 (Insurance), 교육관련 (Education), 여가/문화생활 (Recreational, cultural and sporting activities)가 포함된다. 이 중 식품의 경우 고기 섭취량에 따라 탄소배출 계수가 다르게 설정된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100g이상의 고기

를 섭취하는 사람은 상, 평균적으로 하루에 50에서 100g 사이의 고기를 섭취하는 사람은 중, 평균적으로 하루에 50g 이하의 고기를 섭취하는 사람은 하로 분류된다. 이 외에도 채식주의자의 경우 패스코, 보통 채식주의, 비건으로 구분하여 탄소배출 계수가 다르게 설정된다. 쪽방 주민들의 경우 고기 섭취량은 하로 설정하고 계산하였다. 각 소비 항목은 설정한 기간동안 소비한 금액을 입력하여 측정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에 대해 한달동안 평균적으로 소비한 금액(₩/월)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군의 소비항목을 통계청의 2018년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도시, 1인이상) 중에서 1인 가구 평균 소비 항목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비교군의 고기 섭취량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기준 육류 섭취량인 140g/일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상으로 설정하고 측정하였다.

제4절 연구 결과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3-4-1>과 같다. 연구 참여자 중 남성은 전체 참여자의 79%(38명), 여성은 21%(10명)으로 연구 참여자의 평균나이는 60.56세 (SD=9.4) 였다.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이하 27% (13명), 초등학교 졸업 21% (10명), 중학교 졸업 19%(9명), 고등학교 졸업 25%(12명), 대학교 이상 2명(4%)으로 전반적으로 최종 학력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 중 길거리 노숙을 경험한 참여자는 50%(24명)로 나타났고 수급여부는 75%가 일반 수급 혹은 조건부 수급자였고 25%가 비수급자였다.

<표 3-4-1> 연구 참여자의 특성 (N=43)

항목	구분	N	%
성별	남	38	79
	여	10	20
평균나이	60.56 (std9.4)		
최종학력	초등학교 이하	13	27
	초등학교 졸업	10	21
	중학교 졸업	9	19
	고등학교 졸업	12	25
	대학교 이상	2	4
	응답거부	2	4
거리 노숙경험	유	24	50
	무	23	48
	응답거부	1	2
수급	일반 수급	33	69
	조건부 수급	3	6
	비수급	13	27

2. 연구 참여자들의 탄소발자국

탄소발자국을 측정한 결과 서울역 쪽방촌의 거주하는 주민들의 일 년 평균 탄소배출량은 3.84 톤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 별로는 소비를 통한 탄소배출이 2.55 톤으로 가장 높았고, 에너지 사용 (1.14톤), 대중 교통이용 (0.15톤) 항목이 그 뒤를 이었다.

<표 3-4-2> 연구참여자들의 탄소발자국 (N=43)

	탄소 발자국	에너지 사용			교통						소비 총
		총	전기	도시가스	자가용 총	대중교통					
						총	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서울역 쪽방촌 주민	3.84	1.14	0.77	0.38	-	0.16	0.07	0.07	0	0	2.55
항목별 비교군	10.17	3.37	2.41	0.96	2.42	0.25	0.15	0.07	0.03	0	4.13

에너지 사용 중 전기 사용을 통한 탄소배출은 0.77톤, 도시가스 사용을 통한 탄소배출은 0.38톤으로 나타났다. 설문자 참여자 중 자동차를 소유¹⁴⁾하고 있는 주민들은 한 명도 없었고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탄소배출은 총 0.16톤으로 버스(.07톤), 지하철(.07톤), 택시(0.00088889톤)으로 나타났고 지난 1년간 기차 이용을 한 주민은 없었다.



[그림 3-4-1] 탄소발자국 항목별 비율 (N=48)

[그림 3-4-1]에서 볼 수 있듯이 쪽방 주민들의 탄소배출의 비율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소비가 66%로 가장 많았고, 에너지사용이 30%, 대중교통이 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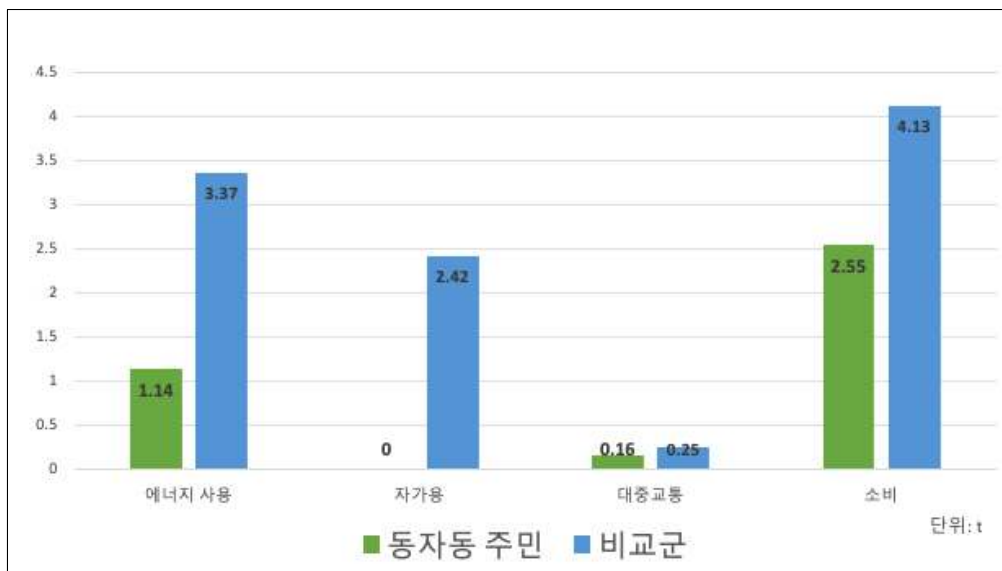
항목별 비교군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 1인 평균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은 3.37톤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전기 사용을 통한 탄소배출은 2.41톤, 도시가스 사용을 통한 탄소배출은 0.96톤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자가용으로 인한 탄소배출은 2.41톤으로 나타났고 대중교통의 이용 경우 총 0.25톤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을 항목별로 보면 버스 0.15톤, 지하

14)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하면서 동자동에서 자동차를 실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두 명이 있었지만 본 설문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철은 0.07톤, 택시는 0.03로 나타났다. 기차의 경우 1인당 평균의 거리가 작아 본 계산기에서는 탄소배출이 0으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소비의 경우 도시 1인가구의 소비로 인한 탄소배출은 4.13톤으로 나타났다.

제5절 논의

동자동 주민들의 탄소발자국은 항목별 비교군에 비해 모두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를 비교군으로 상정하고 항목별 비교군을 총합하면 탄소발자국은 10.17톤으로 나온다. 이는 동자동 주민들의 탄소발자국인 3.84인 2배 이상인 것이다¹⁵⁾. 월드뱅크의 국제 탄소발자국 비교데이터를 보면 2016년 한국 1인 평균 탄소발자국은 12.11톤으로 전 세계에서 1인당 탄소배출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고소득 국가의 평균 탄소배출량인 11.1톤보다 높다.¹⁶⁾ 이에 비해 한국의 최빈층에 속하는 쪽방주민들의 탄소발자국은 1인 가구 평균의 1/3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4-2] 동자동 주민(N=48)과 비교군의 탄소발자국 비교

15) 항목별 비교군의 데이터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동자동 주민들과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합을 대략적으로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라고 상정하고 비교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16) 자료의 출처와 측정 방식이 다르고 해당 자료는 2016년 기준이라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월드뱅크의 2016년 기준 쪽방주민들의 탄소발자국과 비슷한 수준의 국가는 알제리(3.7톤), 아제르바이잔(3.7톤), 레바논 (3.7톤), 멕시코 (3.9톤), 태국 (4.1톤)이었고 이는 중간소득 국가 평균 (3.75톤)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기후격차는 기후위기에 가장 적게 기여하는 계층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기후변화의 불평등과 형평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평균적으로 쪽방촌 주민들에 비해 최소 3배 이상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그림 3-4-2]와 같이 쪽방주민과 세부 항목별 탄소발자국을 비교해보면 에너지 사용을 통한 연간 탄소배출의 경우 서울 1인 가구는 쪽방 주민에 비해 거의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중교통의 경우 쪽방주민이 서울 평균 이용에 비해 60%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로 인한 탄소배출은 서울 1인 가구가 쪽방촌 주민들에 비해 1.6배에 달한다.

1. 소비로 인한 탄소발자국의 불평등 - 경제적 빈곤

[그림 3-4-2]에 나온 탄소배출의 비율을 살펴보면 쪽방에 사는 주민들은 소비로 인한 탄소배출이 66%로 가장 높다. 소비로 인한 탄소배출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소득에서 식생활에 들어가는 지출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설문 조사에서 식료품과 외식비가 한 달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한 달 생활비¹⁷⁾의 46.4%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엔겔 지수는 가계의 생활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최근 들어 외식문화와 배달문화 등으로 엔겔지수가 높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2017년 기준 한국의 평균 엔겔지수는 27.4%로 나타났다.¹⁸⁾ 이에 비해 쪽방주민들의 한 달 생활비에서 거의 반이 식료품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경제적 빈곤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17) 생활비는 생활급여금액인 527,158원으로 가정하고 계산하였음.

18) 중앙일보, 2019년 2월 4일, “개도국서 높다는 엔겔지수의 역습…도대체 한국이 왜? [출처: 중앙일보] 개도국서 높다는 엔겔지수의 역습…도대체 한국이 왜?”



[그림 3-4-3] 동자동 주민(N=48) 과 전국/서울 평균 에너지 사용량 비교

2. 에너지 소비로 인한 탄소발자국의 불평등 - 에너지 빈곤

앞서 나타난 것처럼 동자동 주민들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은 1.14톤으로 서울 1인 가구의 3.37톤에 비해 3배 이상 낮았다. 에너지를 통한 탄소발자국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쪽방주민들의 에너지 사용량이 적다는 것을 뜻한다.

[그림 3-4-3]와 같이 저렴 쪽방의 에너지 사용을 실태를 보면 저렴 쪽방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에너지 소비가 1인 평균 에너지 사용량에 비해 매우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전기의 경우 저렴 쪽방의 평균 전기사용량이 한 달에 140kWh로 전국기준 1인가구의 한 달 428kWh에 비해서 3배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 사용의 경우 저렴 쪽방의 평균 도시가스 사용량은 한 달에 17.33 m³으로 서울 1인가구의 한 달 사용량인 41.2m³에 비해서 2.4배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발자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수도 사용량 역시 저렴 쪽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수도사용량이 한 달에 4.84리터로 서울 1인 가구의 8.91리터에 비해서 1.8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저렴 쪽방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난방 및 온수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에너지 사용량이 대부분의 쪽방에 사는 주민들에 비해 훨씬 높을 것이다. 이는 즉 대부분의 쪽방 주민들의 에너지 빈곤 상태는 훨씬 심한 것을 뜻한다.

쪽방 주민들의 에너지 사용량이 절대적으로 적은 것은 쪽방이라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쪽방이라는 공간의

면적이 좁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가전 제품 자체가 제한된다. 실제 쪽방의 면적을 2평(6.61m²)으로 가정했을 때 이는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면 1인가구는 최소 14m²에 훨씬 작고 서울의 1인 가구 평균 주거면적인 30m²와는 4.5배 이상 차이가 난다. 최저주거기준은 최소면적 기준뿐만 아니라 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뿐만 아니라 안정성, 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에 부합해야한다.¹⁹⁾



[그림 3-4-4] 동자동 주민 D씨의 주거 환경 (남, 60세)

19) 최저주거 기준 제4조(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림 3-4-4]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주민 D씨 (남, 60세)의 방의 일부를 설문조사 후 촬영한 것이다. 동자동에 30년 이상 거주하고 이 방에서 20년 이상 거주했다는 주민 D씨 2평 남짓한 방안에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크기의 냉장고, 전자레인지, 각종 조리도구 등을 갖추고 하루 3끼 음식을 해먹는다고 밝히며 냉장고를 열어 연구자에게 깔끔하게 정리된 본인이 직접 만든 밑반찬을 보여주었다. 주민 D씨의 2평의 방 안에 일반 가정의 침실, 거실, 부엌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쪽방은 일반적으로 화장실과 세면실을 대부분 공동으로 사용하고 부엌은 없어 방에서 휴대용 버너 사용하고 설거지는 화장실 혹은 세면실에서 해야 한다. 주민 D씨처럼 정리정돈을 잘하고 생활력이 강해도 최소 면적

에도 훨씬 못미치는 좁은 방에서 최소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에 맞는 생활을 하기는 힘든 게 당연할 것이다. 또한 D씨의 방처럼 다양한 전기제품을 사용하지만 전기설비설계 기준상 좁은 방에 콘센트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멀티탭을 이용하여 문어발식 전기 사용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화재에도 매우 위험하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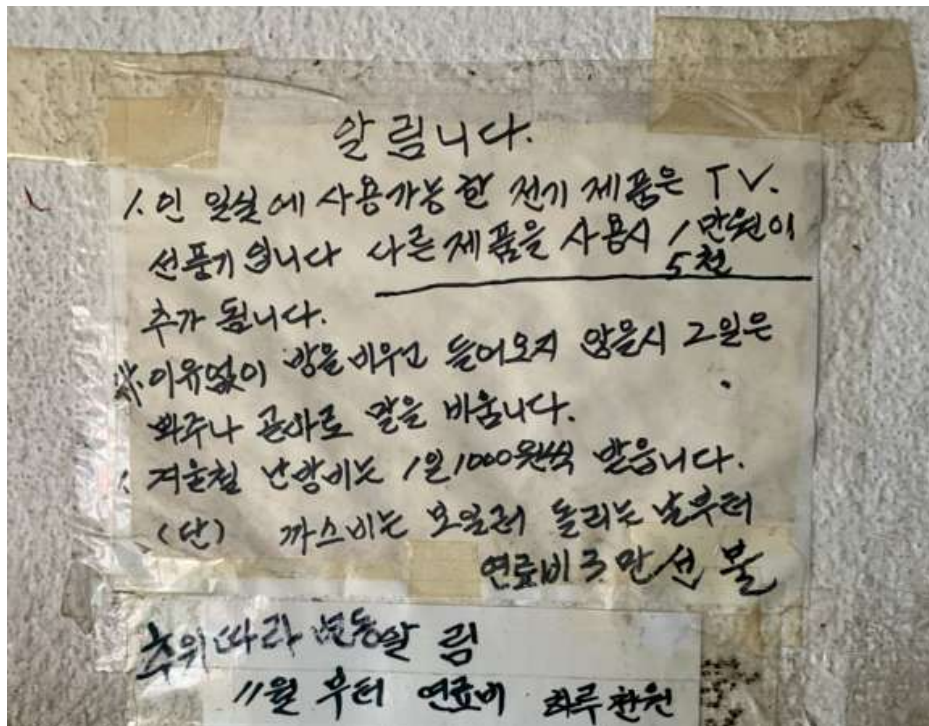


[그림 3-4-5] 동자동 주민 E씨의 주거 환경

[그림 3-4-5]는 연구자가 친하게 지냈던 주민 E씨 (남, 62세)가 살고 있는 쪽방의 부엌의 모습이다. 주민 E씨의 방은 보증금 100만원, 월세 30만원으로 동자동의 다른 쪽방보다 비싸지만 방 앞에 베란다가 있어 그는 이곳을 부엌 겸 세면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어느 여름날 하루 연구자가 주민 E씨의 방에 놀러갔

20) 본 연구자는 주민 D씨와 같은 건물에 살았다. 본 연구자의 2평짜리 방에도 콘센트가 1개 밖에 없어 멀티탭을 이용하여 문어발식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을 때 그가 믹스커피를 대접해준 적이 있다. 그는 커피를 끓이기 위해 부엌에 쭈그려 앉아서 통에 담긴 믹스 커피와 설탕을 듬뿍 담고는 가스레인지로 불을 키고 물을 끓였다. 불이 켜진지 얼마 안돼서 베란다의 공기가 후끈해졌다. 그는 “아오 더워”하고 부엌에서 바로 나오면서 “아이고 이렇게 물도 끓이는 것도 고역이야~”라고 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베란다로 들어 가보니 열기가 후끈했다. 부엌을 나와 “물 끓이는 포트 있지 않으세요? 그거 사용하면 훨씬 덜 더울텐데...”라고 묻자 그는 “있지. 근데 커피 한 잔 마실라고 그거 틀면 전기료가 많이 나오자나~” 라고 대답했다. 일반적으로 월세에 에너지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쪽방과는 그가 살고 있는 방은 매달 가스사용료와 전기사용료가 따로 내기 때문에 그는 수급비로 생활을 하는 그에게는 에너지 사용료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믹서기 같은 것도 있어도 안 쓰는거야. 그거 쓰면 훨씬 많이 나와. 막 2만원씩 나와. 그래서 주스 같은 것도 갈아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안 먹는거야... 그러니까 돈이 부담되니까 뭐든지 자꾸 안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했다.



[그림 3-4-6] 동자동 쪽방 내 안내문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렴 쪽방은 전기, 가스, 수도를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는 것과 다르게 주민 E씨와 같이 대부분의 쪽방 주민들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더 극심한 에너지 빈곤상태에 시달리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민 E씨가 사는 경우 전기와 가스는 개량기가 설치되어 있어 그나마 본인이 부담을 쓰는 만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쪽방은 이마저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는 대부분의 건물주 혹은 관리인이 따라 전기, 가스 사용량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림 3-4-6]은 동자동의 한 쪽방의 계단에 붙어 있는 공고문으로 “T.V. 외의 전기 제품 사용시 1만5천원이 추가됩니다.”라는 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쪽방에 사는 주민들은 사용할 수 있는 전기제품에 까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관리인들은 여름에는 뜨거운 물을 틀어주지 않고 겨울에는 난방비를 추가로 받지만 뜨거운 물과 보일러 역시 틀어주는 시간을 제한한다.

3. 교통수단으로 인한 탄소발자국의 불평등 - 이동의 빈곤

앞서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쪽방주민들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배출되는 탄소는 0.16 톤이고 이는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이다. 반면 서울에서 자가용을 통한 탄소배출량이 1인당 2.42톤이고 대중교통의 이용은 0.25톤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쪽방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하지 않음에도 서울 인구의 1인당 탄소발자국과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대중교통의 탄소발자국 절약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하철의 경우 장가용 운행시 자가용에 비해 0.7% 수준, 버스는 5.5%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은 그만큼 대중교통이 자가용에 비해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실제, 미국 대중교통연합회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해 일 년에 3천700만 톤의 탄소배출을 방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American Public Transportation Association, n.d.).

대중교통을 이용한 탄소발자국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통해 쪽방주민들의 이동에 대한 실태를 알아 볼 수 있다. 실제 설문지를 통해 측정한 쪽방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량을 살펴보면 일주일 평균 버스는 0.8시간, 지하철은 1.24시간으로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이 매우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설문에 참여한 48명의 중 40%에 해당하는 19명의 주민은 일주일 동안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간에 아예 없다고 답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쪽방촌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연구자가 설문조사를 하며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연구자: “일주일에 버스 얼마나 타세요?”

주민A씨: “한 달에 2~3번?... 택시는 안타요. 탈 돈도 없고”

지하철, 고속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이용실태와 자주 다니는 곳에 대해서 묻자 주민 A씨(남, 60세)는 짜증을 내며 “안 움직여요. 갈 때도 없고. 그냥 방콕이야 방콕! ... 어디 갈 일이 없어요. 없어! 보름에 한 번씩 병원에 약 타러 가요!”라고 대답했다. 주민들 대부분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고속버스와 기차 역시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 설문결과 지난 1년 동안 고속 버스를 이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기차를 이용한 사람은 4명뿐 이었다.

또 다른 주민 B씨 (여, 69세) 역시 연구자가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질문을 하자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연구자: 최근에 어디 여행 다녀오신적 있으세요?

주민 B씨: “없어~”

연구자: (조심스럽게) “비행기 타보신적은 없으시구요...?”

주민 B씨: (화를내며) “없어~!!!”

연구자: (또 조심스럽게) 그럼 지하철이나 버스는요?

주민 B씨: “못 타!”

주민 B씨는 기초노령연금으로만 생활을 하고 있어 동자동에서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 밖을 나가기에는 금전적인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평소에도 거동보조기를 이용해서 걸을 만큼 건강상태도 좋지 못해 밖을 다니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가 유일하게 동자동 밖을 가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병원진료가 있을 때이고 그녀의 외출은 동자동의 주민 조직의 활동가가 기관의 차를 운전해서 동행을 해준다.

또 다른 주민 C씨 (남, 63세) 역시 동자동을 벗어날 때는 병원진료를 볼 때만 이라고 했다. “딴 동네 어디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기도 하세요?”라고 연구자가 묻자, 그는 “가는 거는 없고. 이제 내 몸이 아프니까 서울역이나 남산 운동하러 (걸어서) 가는 거고... 내 몸이 이러다 보니까, 괜히 나가기 싫어서 집에서만 박혀 있는 경우가 많지.” 이어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 물어보자 그는 “버스는 잘 안타고, 지하철은 한 달에 한 번 적십자 병원 가고. 뭐 입원할 때 가고. 뭐 그러다 쓰러지고 하면은 119 타고 가고 그런 거지... 어디 밖에 나가고 그런 거는 없어. 몸이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몰라서. 나가지를 못해. 몸이. 어지럽고 다리가 저려서. 뭐 병신이라서 못나가는 게 아니고. 몸이 어지럽고 주저앉고 이러니까 못 나가는 거지. 그리고 뭐 돈이 있어? (허탈하게 웃으며) 방세 뭐 20만원 주고 담배 뭐 피다보면 돈 뭐 있겠어?”

이처럼 동자동 주민들의 대부분은 거의 동자동 밖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의 삶의 양식을 살펴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근로활동은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의 큰 축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 혹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며 주거지역을 벗어난다. 실제 2019년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데 이용한 시간은 평균 1시간 27분으로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실태에 따르면 2019년 수도권에서는 하루 평균 730만 명이 1천845만 건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쪽방촌의 주민들은 대부분 근로활동을 통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한 주민들의 73%는 수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이는 서울의 다른 쪽방촌에서도 비슷하다²¹⁾. 2019년 서울시에서 서울 5개의 쪽방촌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79.8%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다. 근로활동을 하는 20%의 주민들 중에서도 50.9%는 노숙인 특별자활,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숙인 일자리 등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을 통해 근로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거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활동을 통해서 주거 지역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다.

21) 서울시 (2019)에 따르면 72.8%의 쪽방촌 주민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를 하지 못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규정상 수급을 받으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

위의 인터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거 지역 밖으로 나갈 때는 대부분 병원 진료가 목적이었다²²⁾. 이는 쪽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데, 2019년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56.9%가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쁨이고 83.9%는 평소에 앓고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쪽방촌 주민들의 71.6%는 연락할 사람이 전혀 없다고 답을 했고 최근 1년 이내에 가족이나 친지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는 적이 있는지에 대한 항목에는 아무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56.5%, 가족, 친척이 없다고 대답한 응답이 (28.9%)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가족, 그리고 그 외 사회적 관계들이 단절이 그들이 주거 지역 밖을 벗어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22) 주민들 중 상당수는 주거지역 밖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동부시립병원, 서울 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제 4 장 동자동 주민들의 폭염 재난에 대한 경험

제1절 들어가며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과 헤어져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왔다는 김모(63)씨. 대여섯 차례 이사도 다녔지만 쪽방촌에서 지낸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23일 찾아간 김씨의 쪽방에는 20여년에 걸친 쪽방촌 생활의 흔적을 보여주듯 옷가지와 이불, 냉장고, 전기밥솥 등 세간살이가 한평 남짓한 공간에 가득했다. 창문은 맞은편 건물에 가로막혀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 불을 켜지 않으면 낮에도 어두웠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그는 매달 25만원씩 월세를 내며 이 방에 살고 있다. 올해 여름은 평소보다 덥고 폭염·열대야도 잦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비좁은 방에 위태롭게 놓여있는 선풍기 한 대가 폭염에 맞설 유일한 냉방기였다.

이날 마침 비가 내려 밖은 비교적 시원했지만, 비좁은 쪽방 안은 덥고 습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계속 땀이 났다. 방 한쪽에는 습한 날씨에 아직 다 마르지 않은 빨래들이 옷걸이에 걸려 빼곡하게 널려 있었다. 복도 맞은편에 있는 공용화장실 냄새가 방 안까지 들어와 코를 찔렀다.

김씨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에어컨은 꿈 같은 소리"라고 했다. "더운 날에는 찬물을 끼얹고 선풍기 바람을 쐬며 가만히 눕는다. 유독 날씨가 더운 밤에는 자다 깨기를 반복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김씨는 방 안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 그는 "아프면 결국 돈 문제가 생기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꺼려진다"며 "원래 동네 공원에 술자리도 많았는데 전보다 조용해진 것 같다. 집 밖에서 볼 일을 마치면 집에 와서 계속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폭염이 걱정되지 않느냐는 물음엔 "매년 있는 일이고 다른 곳에 갈 처지도 안 된다. 더우면 더운 대로 형편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했다. 김씨의 방이 있는 낡은 건물에는 비좁은 복도를 따라 쪽방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다.

(연합뉴스, 2020년 7월 26일)

매년 여름철 겨울철이 되면 폭염과 한파와 같은 극한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 쪽방촌의 주민들에 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진다. 2020년에는 코로나-19까지 더해져 여름 더위를 앞두고 쪽방촌에 겹재앙²³⁾에 닥쳤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현지조사를 하며 쪽방촌에는 혹서기 혹한기만 되면 언론의 취재와 보도가 일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즈음²⁴⁾ 위에 기사를 접했다. 이 기

23) 중앙일보, 2020년 7월 4일, "엮힌 코로나, 덮친 폭염...쪽방촌·방역 일선 겹재앙 닥친다"

24) 현지조사를 하면서 동자동에 취재를 온 방송사 PD와 기사를 볼 수 있었고 심지어 현지조사를 하고 있는 연구자에게도 방송에 출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있었다.

사에 눈이 갔던 이유는 초반에 언급되는 김우진²⁵⁾(남, 63세) 님을 내가 불과 한 달 전에 인터뷰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진행한 인터뷰는 기사의 내용이 유사하게 더위, 추위, 코로나-19에 대한 김우진님의 생각과 그가 일상에서 이를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기사에 언급된 김우진님의 인터뷰는 본 연구를 위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가 했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혹서기가 주거 빈곤층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으로 마무리 된 기사의 논조에도 수긍했지만 불구하고 나는 기사를 읽고 계속해서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인터뷰 녹취록과 당시 작성한 메모를 다시 읽어보았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기사에서는 그의 이야기가 나온 배경과 맥락들, 그의 이야기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쪽방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취하는 전략들과 그 안에서도 삶을 꾸려내는 노력의 경험들, 즉 그의 행위자로서의 주체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올바른 주장을 위해 그의 빈곤이 동원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대부분 언론이 쪽방촌의 여름과 겨울을 재현하는 방식은 이와 비슷하다. 독자의 감각을 자극하기 위해 주거 환경의 열악함을 서술하는 어휘들이 배치되고 인터뷰 대상이 되는 쪽방촌 주민들은 사회적 무관심 속에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무기력한 혹은 자포자기한 사람들로 그려진다. 마무리는 대부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학계의 전문가나 현장 활동가가 제언으로 끝난다. 하지만 이런 보도는 과연 쪽방촌에 사는 주민들의 삶을 제대로 조명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쪽방촌에 사는 주민들은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가? 그들은 폭염과 한파 앞에서 무기력한가? 그들은 이를 이겨내기 위해 일상에서 어떤 실천 행위들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무기력하고 자포자기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런 질문들에서 출발하였다. 고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기 힘들었던 주거 취약계층인 쪽방 주민들이 폭염과 한파와 같은 극한 기후 현상을 일상에서 어떻게 느끼고 이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25) 본 장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명을 사용함을 밝힌다.

환경문제는 지역사회의 역사와 맥락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들의 주관적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환경 불평등 문제를 다룬 연구들에서는 취약계층이 실제 일상에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고 느끼는지 거의 다루지 않았다. 존의 연구들은 대상자들의 주관적 인식 보다는 주로 객관적인 오염의 수치를 측정하고 파악하는 데에 치중되어 있다 (King, 2015). 이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연구 대상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경험(local knowledge)과 인식(localized perception)은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온 것이다.

연구 대상자가 취약계층일 경우 그들의 주관적 인식과 경험을 탐구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성하다. 그 이유는 첫 째, 빈곤층과 그 외 취약계층은 역사적으로 환경문제와 그 의사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건국의 시점부터 지금까지도 소수 인종이 자원획득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소수인종이 오염원(environmental hazard) 근처에 살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Mohai et al., 2009). 인종이 경제적 수준 보다도 환경오염원과의 거리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변수²⁶⁾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환경 관련 시민조직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백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연구결과 (Taylor, 2014) 역시 미국의 환경인종주의 (environmental racism)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환경관련 문제에 대한 결정권과 발언권에서 소수자가 배제되어 온 역사를 봤을 때 그들의 경험과 관점은 더욱더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취약계층의 주관적 인식은 지역사회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en, Hawkey, & Cacioppo, 2006). 가령 교통, 소음, 쓰레기, 악취와 같은 지역사회의 문제가 주민들의 인식이 지역사회에 천식이 있는 주민들의 삶에 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Yen, Yelin, Katz, Eisner, & Blanc, 2006)는 주관적 인식의 실재적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 주민들의 협동에 관한 주민들의 인식이 건강과 연관성이 있고 (Ellaway, Macintyre, & Kearns, 2001) 오염 노출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실제 오염 노출과 건강 관계에 조절효과를 미친

26) 1987년 미국 United Church of Christ에서 “Toxic Wastes and Race in the United State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환경오염원이 위치한 곳에 소수인종이 살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환경인종주의를 보여준 초기의 연구로 20년 뒤인 2007년 “Toxic Wastes and Race at Twenty, 1987-2007: Grassroots Struggles to Dismantle Environmental Racism in the United States.”의 후속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20년 이 지난 후에도 결과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Elliott, Cole, Krueger, Voorberg, & Wakefield, 1999). 이러한 연구 결과는 왜 우리가 취약계층의 주관적 인식을 조명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의 경험(local knowledge and experience)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지역사회 당사자들이야말로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이 반영된 정책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Mason et al., 2017). Petts & Brooks (2006)는 환경 계획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의 인식과 경험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평범한 사람들의 경험과 시각에는 전문가들이 제시하지 못하는 전문성 (lay expert)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그 동안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역사적 배제되어 왔다는 형평성의 측면을 넘어 그들의 인식이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들은 외부인이 갖지 못하고 있는 통찰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의 경험과 인식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폭염, 한파와 같은 재난의 피해를 예측하거나 파악하기에 앞서 실제 취약계층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2절 자료 수집 방법 및 분석

본 연구는 앞서 1장 2절에서 언급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연구자의 참여관찰과 작성한 필드노트와 수행한 문화기술지적 인터뷰 (ethnographic interviewing)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이다. 문화기술지적 인터뷰란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인 주민들의 일상에 참여하고 관찰하면서 진행되는 비공식적(informal) 대화들과 비구조화된(unstructured) 인터뷰, 또한 이를 통해 얻은 정보와 통찰을 바탕으로 질문지를 만들어 진행한 반구조화 된 (semistructured interview)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비구조화된 인터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현장에서 연구대상자들이 살아내고 있는 삶의 경험들 (lived experience)을 포착하기에 가장 적절한 인터뷰 방법으로 (Bernard, 2011, p156-160) 특히 쪽방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라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요했다. 또한, 이미 수없이 많은 언론, 연구자,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들락날락 하는 공간이 되어버려 이에 대해 경계심 혹은 적대감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다수라는 점²⁷⁾ 역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진행되는 비공식 인터뷰는가 유용했다. 가령 앞서 에너지 빈곤에 관한 내용에 대한 힌트를 준 주민 E씨와의 대화는 주민 E씨의 방에 놀러가서 커피를 마시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구조화된 질문지를 갖고 인터뷰를 했다면 포착될 수 없었던 내용이다.

현지조사의 전반부(2019년 12월 - 2020년 4월)는 현장에서 신뢰를 얻고 주민들과 친분을 쌓고 라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일상에서의 대화와 참여관찰에 중점을 두었고 현지조사를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동자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했다.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후반부에 진행한 이유는 첫 째, 외부자인 연구자가 현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공식적인 약속을 잡아서 녹음기를 들고 준비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하는 인터뷰를 진행하면 오히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 주제가 폭염이기 때문에 더운 날씨가 시작되는 시기에 인터뷰를 하는 것이 더 풍부한 대화를 이끌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5월부터 동자동 주민 40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폭염 한파와 같은 극한기후에 대한 주민들이 생각, 일상에서 이에 대응하는 방법, 더 나아가 코로나-19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었고 각 인터뷰는 1~2시간 정도가 소요됐다. 또한 반구조화된 인터뷰에 참여한 주민들에게는 2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주민 인터뷰와 더불어 폭염과 이를 이겨내는 방법, 코로나-19를 주제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두 차례 진행하였다. 첫 번째 포커스 그룹은 6월 26일 동자동 사랑방의 공동 주방인 식도락에서 동자동 사랑방 주민활동가 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두 번째 포커스 그룹은 7월 27일 서울역 쪽방상담소에서 서울역쪽방상담소에서 자활근무를 하는 주민들 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²⁸⁾.

인터뷰 녹취록, 비공식 대화들이 기록된 참여관찰 노트, 그리고 연구자가 작성한 분석적 메모 (analytical memo)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읽은 내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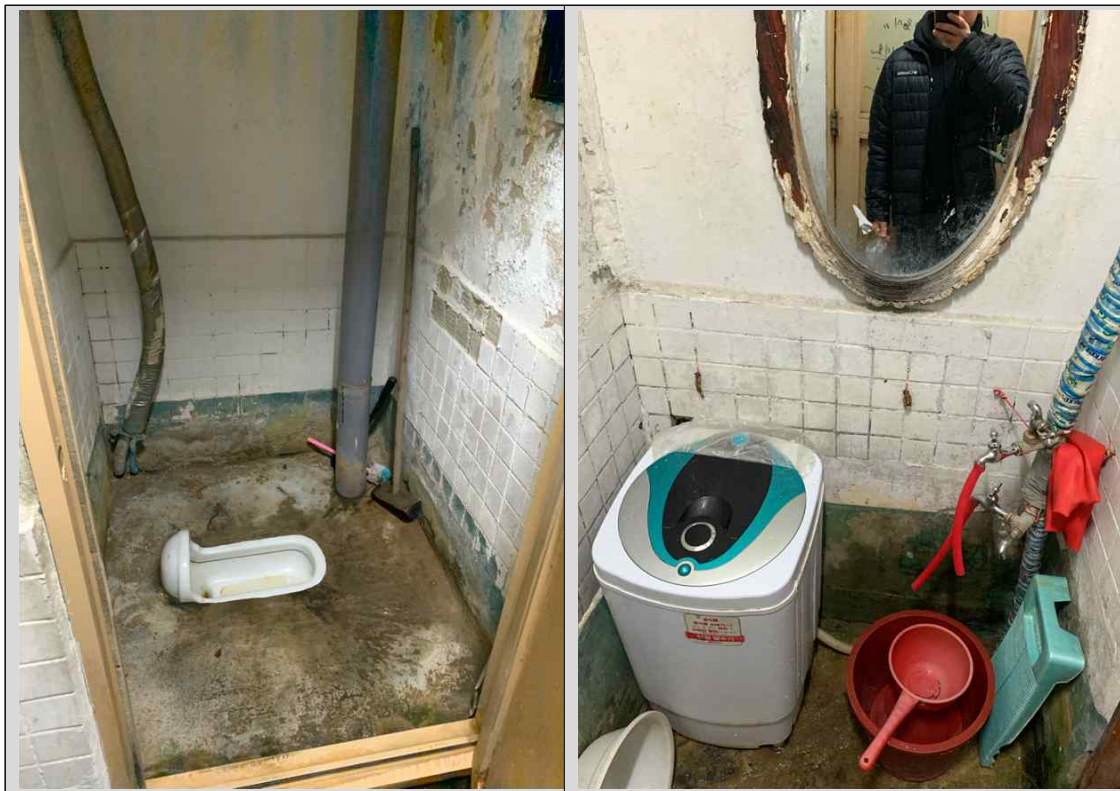
27) 기자나 연구자와 같은 외부인에 대한 적대감이 있는 주민들과는 정반대로 언론, 연구자가 진행하는 인터뷰, 설문지를 이미 많이 경험해보아 익숙해진 주민들과 여기에 오히려 적극적인 주민들도 있었다.

28) 첫 번째 포커스 그룹은 참여자들의 간식과 음료를 제공했고 두 번째 포커스 그룹은 참여자들에게 2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지급하였다.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제3절 조사 결과

쪽방촌은 다른 재난에 비해 폭염에 특이나 취약한 주거환경이다. 실제 서울의 쪽방촌이 위치한 5곳은 서울에서도 온도가 높은 도심지에 위치하고(기후정의연구소, 2010) 있을 뿐만 아니라 쪽방촌의 낙후된 건물과 창문이 없는 방도 많아 공기가 순환되지 않아 다른 재난에 비해 폭염에 취약하다.



[그림 4-3-1] 동자동 주민 화장실 및 세면대 예시

또한 일반적으로 쪽방은 개인 화장실이나 세면실이 없기에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수분 섭취와 샤워를 하기가 힘들다.

나아가 밥을 직접 해서 먹는 주민들의 경우 대부분 좁은 방안에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의 열기가 나오고 조리시 휴대용 버너에서 나오는 열기가 더해져 여름철의 체감 온도는 더욱 높다.



[그림 4-3-2] 동자동 주민 쪽방 실내 예시

여름에는 너무 덥고 거기 습하고 하니까 너무 덥고 뭐 밥해먹기 불편해서... 방에서 해먹을라 하면 완전 찝통이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쪽방이니까 뭐. 뭐 저기 주방이 없으니까 방안에다가 냉장고 들여놓고 그럼 냉장고 열 엄청나고 그러니까 덥지.
(김00, 여, 71세)

열나지! 되게 불판 가스 그거 뉘가지고 해먹을라고 하면 불 엄청나지. 아주 말도 못해
(이00, 여, 69세)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서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서 진행한 <폭염이 서울시 쪽방촌 독거노인에게 미치는 건강 영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폭염이 쪽방이라는 공간에 사는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돈의동 쪽방촌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두 연구에 따르면 여름철 쪽방의 실내 온도는 서울시에서 권고하는 온도보다 5도가 더 높았고 조사 기간 동안 조사 참여자들의 수면 시간은 2시간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5%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수명장애를 겪는다고 밝혔으며 70%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 이상 자각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처럼 쪽방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폭염은 실제적인 위협이다. 이는 1995년 시카고 폭염과 2003년 빠리의 폭염처럼 언제든지 대량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재난에 취약한 환경인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만나본 쪽방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폭염, 더위는 긴급함, 위중함과 같은 재난과는 거리가 멀어보였다. 앞서 기사에 언급된 김우진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그에게 “보통 주민들은 여름이나 겨울에 어떠세요?” 라고 묻자 그는 “신경을 안쓰지. 나 살기도 바쁜데...” 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더우면 다들 (밖에) 나와 있잖나. 공원에 나와 있잖나. 다들. 웬만한 사람들 나와서 돈자리 깔고 술 먹고 놀거나 그거 구경하고 이러자나... 다들 보면. 부류가 딱 두 가지야. 술 먹는 사람은 (더워도 그냥 나와서) 술 먹고 술 안 먹 사람은 이제 빙빙 더우니까 동네 돌아다니다가 샤워”를 한다며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라는 듯이 대화를 이어나갔다. 폭염에도 신경을 안쓴다는 그의 말에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가 몇 년 전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갔었지만 2년 만에 자발적으로 다시 동자동으로 이사를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더위나 추위와 같은 것은 매년 찾아오는 일상화된 골칫거리 정도로 여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김우진님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태도였다.

8월 중순 오후에 동자동에서 50년 넘게 살고 있는 신석호 님(65세, 남)의 방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날은 최고 온도가 27도로 아주 덥지는 않았지만 오래 지속된 장마로 습도가 매우 높아 인터뷰를 하는 내내 땀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하는 그는 덥다는 내식을 전혀 하지 않았다. 더울 때는 보통 어떻게 하시냐는 질문에 그는 “가-만히 있죠. 문 활짝 열어놓고. 그냥 가만히이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원해요. 문 조금 열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시원해요.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도 않고”라고 대답했다. 더위도 문을 열어두고 자면 오히려 시원하다는 그의 말에 조금 놀라 인터뷰 후반부에 재차 “여름에 진짜 더울 때는 어떻게 하세요?”라고 다시 묻자 그는 대답을 하지 않고 큰 눈으로 멀뚱멀뚱 쳐다보며 고개를 살짝 위로 들어 턱으로 내 뒤를 가리켰다. 내 뒤에는 눅혀진 벽걸이 선풍기가 바닥에서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직접 일어서서 어떻게 문을 열고 자는지 보여주었다. “문을 약간 열어 놔요. 약간 (엄지와 검지로 벌려 요만큼을 열어 놓 것을 보여주고는 문틈 사이에 끼어있는 걸레를 가르켰다) 그리고 걸레를 싸 악- 넣고서 문을 이걸 확 열어놓으면 공기가 막 통하니까 이렇게 두면 시-원해요- 바람이 싹악 오니까.”

신석호님 역시 덥고 추운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다. 그에게 더위는 문을 열어두고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시원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더울 때는 방문과 창문에 문풍지를 붙여놓고 살면 되는 일상적인 일인데 오히려 더위와 추위에 대해 자꾸 케묻는 외부자인 나를 의아하게 본다는 느낌을 받았다. 신석호님과 인터뷰를 한 이튿날 새벽은 유독 길었던 장마철이 막 끝나가고 늦더위가 오기 시작하던 날이었다. 나는 자려고 누웠지만 방안 온도가 30도를 넘어 새벽까지 잠을 뒤척이다가 오전 12시쯤 공동 세면실로 가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내 방앞 복도에서 내 앞방에 사는 박영홍님 (00세, 남)이 담배를 피고 있었다. 속옷만 입고 물에 신 물수건을 머리 위에 올려두고 담배를 피던 그와 방안의 더위를 피해 한 시간 정도 더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많이 더우시죠?” 라고 묻자 그가 말했다.

(더워서) 담배도 웬만하면 나와 피기도 하고. 그래도 겨울보다 여름이 못해요~ 겨울은 도망갈 이불 속이라도 있지. 여름은 꿈쩍 마라지예. (속옷만 입고 있는 자신을 눈짓으로 가르키며) 그러니까 이리 사는 거지 . 더우니까 잠을 못 자겠는 기라. 그러니까 이제 새들이 깬 때가 한 4시 되거든요? 그러면 4시나 되면 바람이 이제 틀려진다고. 왜~ 땀 흘렸던 것도 식고 그러문~ 이제 아~ 고 때 이제 누워서 사알~짝 좀 자는 거지. 그러면 한 9시, 10시까지 자다가 일어나고. 그 답에는 이제 자고 싶어도 더워서 못 자지. 그래도 난 다행히 수도29)가 있으니까... 수도 저게 거의 백만불짜리지 [오허허허허] 쪽방에서는 호텔급이지. 수도가 있다는 거는 바로 문 밖에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 그데요. 배산임수라고... 뒤로는 산이 앞으로는 강이... 그게 명당인기라... [오호호호호]

박영홍님은 여름이 되면 옥탑에 있는 방이 더욱 더워서 잠을 설치고 불편하지만 쪽방에 살면서 덥고 추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오히려 방에 수도꼭지가 있는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는 상황이 괜찮다고 웃음을 지었다.

정부의 임대주택에 살다가 다시 쪽방으로 이사온 김우진님, 땀이 흐르는 방안에서도 문을 열어두면 시원하다던 신석호님, 더워서 속옷만 입고 머리에는 물에 적신 수건을 올려두고도 설치면서도 견딜만 하다던 박영홍님의 모습에서 폭염은 재난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다. 더위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재난이라기보다는 이미 일상화되어 있는 너무나 당연하게 견뎌내야 하는 것

29) 박영홍님과 내가 살았던 건물의 4층에는 7개의 방이 있었고 박영홍님의 방이 위치한 쪽의 방 3개는 개인별로 방에 수도꼭지가 있었다.

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박영홍님과과의 한 시간 넘게 대화를 마무리 하며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도) 다 살아집니다.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그게 인생이지.”

이처럼 대부분의 쪽방촌 주민들은 덥고 춥고 한 것은 불편하고 이런 상황이 고생스럽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상당수 주민들은 쪽방에 살면 그런 건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012년부터 동자동에서 산 백기현님 (남, 63세)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백기현님과의 인터뷰 일부이다.

요즘에 막 춥고 더울 때 제일 고생이 심하시죠?

근데 그거는 사람이 각오가 돼야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계속 내가 약하고 노인네 뭐 이런걸 떠나서 여름이 되면 덥다는 걸 느껴야 되고 자기 자신이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 (정부에서) 일일이 다 해줄 수 없는 거잖아. 추우면 자기가 또 방어를 해야 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를 일일이 다 해줄 수 없는 거잖아.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 방어를 하세요?

나는 그냥 여름 되면 늘 누가 덥다고 그러면 얘기해 ‘야 임마 두 달 더우면 더운 대로 더운 사람도 재미나고.. 땀 좀 흘리고 하다가 좀 있으면 어휴~ 또 추워 겨울이네 그러면~ 겨울이 오는가보다~ 그러면 진짜 시간 금방가~’ 몇 년 금방 간다니까. 일 년 같은데 몇 년 (지나)가고 그래

예전에 거리에서 계시거나 찜질방에서 지내시고 하실 때는 여름하고 겨울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더울 때하고 추울 때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그런 걸 어떻게 일일이 따지겠어? (누구는) 겨울이 좋았어 (누구는) 가을이 좋았어~ (누구는) 봄이 좋았어~ 그렇잖아? 어떤 사람은 가을이 좋을 수도 있잖아. 봄은 새로 시작되고 그런대로 멋이 있으니까 ... (근데) 여름이 진짜 힘들다고? 나도 어떨때는 겨울이 시원하고 잠바입고 하면은 (괜찮고) 여름에는 땀나고 덥고 밤에 열대야에 오면? (그거에 비해) 겨울은 저기(전기장판)라도 깔 면은 잠 잘 오잖아. 어떤 사람도 여름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겨울에는 이상하게 몸이 아파서 땀이 나면 몸

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결국)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보는 거는 거의 똑같다고 봐요.

그러면 날씨 때문에 일상에 지장이 가는 부분은 없으세요?

그런 거는 없어요. (에어컨 이런 게 있으면 좋을 수도) 당연히 좋지. 근데 그거는 있는 사람들에게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여름이 좋냐 겨울이 그걸 이야기 했을 때 하는 이야기야 어떨 때 보면 너무 추우면 여름이 좋은 거고 또 여름이 열대아가 한참 빨리 오면은 겨울이 왔어. 사람 마음이 그렇게 변하는 거라니까. 겨울에 스포츠 안해? 더 많이해~ 스키도 타고 추워도 간단 말이야! 차로 해가지고 돈! 그 돈 들어가서라도. (그렇게 보면) 겨울만 기다리는 젊은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야.

백기현님에게 춥고 더움으로 인한 불편함은 개인의 선호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폭염과 한파는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일 뿐이었고 그러기에 그는 폭염 한파로 인해 힘들다고 호소하지 않았다.

그의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들은 쪽방에 살면 덥고 추운 건 개인이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드리고 있었다. 이는 앞서 연합 뉴스 기사에서 김우진님의 말처럼 쪽방에서 덥고 추운 것은 “매년 있는 일”뿐이고 쪽방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에서도 볼 수 있다.

포커스 그룹을 통해 더위를 한 마디로 표현해달라는 나의 부탁에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더위를 한 마디로 표현하시면 어떻게 이야기 하시겠어요?

참여자1 : "아무래도 고통스럽지."

참여자2 : "감옥 같아요."

참여자3 : "짜증이죠 짜증."

참여자4 : "자신과의 싸움?"

참여자5 : "어쩔 수 없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2

즉, 주민들에게 더위는 심지어 좁은 감옥같은 방에서 버텨야 하기에 고통스러운 짜증이지만 이는 동시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자신이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은 왜 열악하고 실내 온도가 적정온도보다 5도나 높은 곳에 살면서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이를 혼자서 견뎌내고 있는 것인가?

현지조사를 하면서 연구자와 친하게 지낸 김정국님 (70세, 남)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90년대 말에 거리 노숙을 5년 정도 하고 2000년대 초반에 동자동으로 온 김정국님은 거리 노숙을 하던 시절에 비해 지금은 훨씬 나아진 거라고 강조했다.

예전에는 거리노숙도 하셨잖아요. 그때는 여름하고 겨울에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겨울이 최고 힘들지. 겨울이 힘들지. 겨울엔 춥고. 그럼 어떻게 버티셨어?

그래도 견뎌냈지. 얼어먹고 교회에서 밥 준다고 하면 교회는 밥 주니까 밥먹고. 추우니까 교회 끝날 때까지 끝까지 있고. 그 안에서 그러다 하도 추운 날에는 서울역 대합실에 가고, 용산 대합실도 있고, 대합실은 다 있잖아 대합실에서 자면 쫓아내지 않아요? 그럼 쫓아 내는데 지금은 이제 쫓겨내지만 그때는 안 그랬지. 그럼 쫓아낼 때는 밖에서 주무셨어요? 교회나 병원가지. 병원이 문열어 놓잖아 그럼 의자에 스팀이 들어오잖아. 뜨뜻하잖아. 병원은 겨울에 그러면 거기 의자에서 자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낮에 하도 잠 못자고 그러면 피곤하다 보면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고 지하철 안이 따듯하잖아. 옛날에는 지하철에도 노숙자 많이 타고 다녔어 잠자느냐고 지금은 없잖아 지금은 있는 곳 봤어? 없잖아! 지금은 잡아가 여기서 자지 말라고 그럼 여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름에는 여름이 더 좋지 살기에는 여름에는 그래도 물이라도 그럼 주로 겨울에는 병원도가고 교회도 가고 하는데 여름에는 밖에서 주로 주무신 거네요. 여름에는 주로 밖에서 얼어 죽지는 않잖아. 더울 때는 그냥 찬물 끼얹고 교회에서 씻고 난 노숙할 때 그랬어.

그럼 그 때에 비해서 방이 생기니까 어떠세요? 아... 지금은 낫지. 방이 있다는 건 누울 자리가 있다는 건 그전에는 노숙을 했지만 그나마 이 나이에 수급을 주니까 낫다 이거지 그전에는 수급이라는 게 없었잖아. 수급도 된지가 얼마 안돼, 이거 생긴지도. 내가 누울 자리가 있다는 거... (내가 누울 자리가 있다는 건) 내가 좋지. 편하고. 누가 뭐라 안하고 나가라고 하지 않고. 관여 안 받잖아. 자, 대합실이나 서울이나 지하철 타면 ‘왜 여기서 자냐! 가라! 나가라!’ 그러잖아. 그런데 내 방에 좋은 나쁜 간에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잖아. 지금이 행복하다 이거지 그렇잖아 그게 행복이지. 그럼 여름이나 겨울이나 따로 방이 생겨서 훨씬 편하신 거예요? 여름엔 그래도 덥잖아요? 여름에 더워도 그전에 노숙하는 것보다는 행복하지. 내가 뭐 더워도 마음대로 왔다갔다 한다는 거. 그리고 수도꼭지가 나오니까 마음대로 씻는다는 거 그게 좋지. 그런데 노숙할 때는 나가라 강요를 받았지. ‘가라!’ ‘여기서 왜 자냐? 나가세요!’ 그런 강요를 안 받잖아.

김정국님은 과거 거리노숙을 했던 경험에 비추어 지금 살고 있는 방이 좁은 방이기는 하지만 누가 관여하지 않고 본인의 뜻대로 언제든지 마음 편히 누울 수 있고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가 있기 때문에 더워도 언제든지 가서 씻을 수 있기 때문에 더워나 추위는 견딜만하다고 했다. 앞서 덤고 추운 건 개인의 취향이라고 이야기 했던 백기현님 역시 거리 노숙, 여인숙, 찜질방 생활을 하던 경험이 있었고 그에게 처음에 (쪽)방을 얻어서 들어왔을 때 기분이 어땠냐고 물어보았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다.

말도 못하게 좋았지. 왜? 내가 잘 수 있다는 거. 테레비라도 조그만 게 있고 그래도 사람이 쉴 수 있다는 거. 내 방이라는 거. 그거는 말도 못하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차이지... 여인숙에서 만원주고 자고 사우나에서 자고... (감탄)어우~ 그거는 없는 사람들은 늘 꿈꾸어 왔던거야. (방이) 크지도 않고 티비랑 냉장고에다가 조금만 봉(옷걸이) 만하나 있었으면 (하는 거).

이처럼 쪽방촌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과거에 지금 살고 있는 환경보다 더 혹독했던 환경에서 살아온 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러기에 쪽방이라는 가장 취약한 주거 공간도 과거의 경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이고 몇몇 주민들은 이를 감지덕지라고 느끼고 있었다.

김정국님의 인터뷰에서 대부분 주민들이 외부의 시선과 다르게 폭염이나 한파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다고 나의 생각을 이야기 하니 그는 이렇게 이야기 했다.

그렇지. 문제는 아니지. 여기는 다 노숙을 해봤고 고생을 해봤고 바퀴벌레가 바글 바글 한데도 뭐 더럽다? 그런 거는 뭐 (익숙하지) ,, 그 바퀴벌레 있어서 못 살겠다? 나도 봐요~ 없이 살고. (나도 잘살고) 싶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 (우리는) 항상 평소에 힘들어 왔잖아. 그런 게 없잖아. 내색을 안 하잖아 우리 주민들은. 방이 있죠 ‘아이고 나는 불편하네~ 못 살겠네~’ 그런 소리 해봤자 다 그 사람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준모씨 여기 공부하러 왔다하니까 자세히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지켜보면 알 것이다 하는 소리를 내가 했잖아.

그가 이야기 한 것처럼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수록 대부분의 주민들은 비슷한 반응이었다. 더위와 추위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면

앞서 백기현님이 이야기 했던 것처럼 개인 선호에 따라 여름이 더워서 더 힘들다는 주민들도 있었고 겨울이 추워서 더 힘들다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더위와 추위는 외부의 시선과 다르게 생사가 오가는 재난적 상황이 아니라 그들이 견뎌내야 하는 일상의 불편함 정도로 인식되고 있었다.

쪽방촌 주민들에게 더위와 추위가 재난이 아닌 일상의 불편함인 이유는 쪽방촌 주민들은 항상 평소에 힘들게 살아왔고(‘(우리는) 항상 평소에 힘들어 왔잖아’) 힘들다는 소리를 해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아이고 나는 불편하네~ 못살겠~’ 그런 소리를 해봤자.)이라고 이야기한 김정국님의 대답에서 찾을 수 있었다.

동자동 주민조직 상임간사 문인숙 활동가 인터뷰 중 그에게도 폭염이 재난적이 상황이라는 것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주민들 중 많은 분들은 (일반적인 주거) 환경을 몰라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걸 몰라요. 혹여나 그렇게 살아봤던 분들은. 이곳이 지옥 같은 곳이니까. 결국 나가시는 거고. 옛날부터 너무 가난해서 그러셨던 분들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이모님... 지금 보면 보일러 같은 것도 작동을 못하시자나요.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야 보일러를 쓸 일이 없었던 거지...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삶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덥고 춥고에 대해서... 못 느끼고 그러는 거지...

문인숙 활동가가 언급한 ○○이모님은 20년 넘게 동자동에 살고 있는 주민조직에 적극 참여하는 주민 활동가로 2020년 6월까지 서울역 쪽방상당소에서 운영하는 두 평짜리 저렴 쪽방에 살다가 주민조직 사무실 근처로 방을 옮겼다. 그가 새로 옮긴 반지하방은 그 전 방에 비해 두 배 정도 더 넓었고 방문 앞에 수도꼭지가 달린 공간이 있어 부엌과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연구자와 문인숙 활동가는 방계약과 전화, 티비 케이블 서비스 이전 등 그의 이사 과정을 도와주었는데 ○○이모님은 새로 이사 온 방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 개념과 작동법을 몰라 그녀에게 물어본 것이다.

문인숙 활동가가 이야기 한 것처럼 쪽방촌 주민들의 절반 정도는 거리 노숙을 했던 경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주민들의 상당수도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일반적 주거형태가 아닌 쪽방과 같은 비적정 주거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 즉, ‘항상 평소에도 힘들게

살아 온' 쪽방촌 주민들에게는 정상적인 주거형태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인 것이다. 또한 주민들이 더위와 추위라는 재난적일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내의 한 홈리스 관련 시민단체의 상임간사인 김두선 활동가는 이렇게 이야기 했다.

현재 상황이 워낙 이제 열악하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바꾸는 것보다는 내가 여기 적응하는 게 훨씬 더 나를 위해서 빠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건 사실 거리 홈리스들에게도 모르는 기자들이 와서 '왜 이렇게 사세요?'라고 물어보면 '그냥 이게 편해'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사실은 절반에 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워딩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이제 현실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그리고 사실은 이제 또 실제로 적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했을 때 좀 늘어지거나 내성이 생긴 거나 그렇게 되기도 하겠쥬 그런 소위 얘기하는 체념 이런 것들이 좀 크다고 봐요.

쪽방 상담소나 이런 곳에서 뭘 더 해주시면 좋을 거 같으세요?

부족한대로 살아야지 뭘 더 바라나, 이 사람아~ 생각해봐,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뭘 더 바래. 마음이 편안하면 거기가 천국이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내가 83살인데 여기서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사람은 욕심을 부리면 끝이 없어.

(문성태 , 80세, 남)

쪽방촌에 20년 넘게 산 문성태님과 쪽방에 살면서 힘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혹시나 더 필요한 것이 있냐고 물었을 때 더 부족한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의 대답에서 김두선 활동가가 이야기 한 것처럼 쪽방촌 주민들은 쪽방촌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에 오래 살아서 내성이 생긴 것뿐만 아니라 변화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내성이 생겨 체념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열악한 환경에 무감각해지고 이러한 환경이 개선될 희망이 보이지 않기에 쪽방촌 주민들은 김정국님의 말처럼 '아이고 나는 불편하네~ 못살겠네~ 그런 소리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느끼고 결국은 더위와 추위라는 것은 참고 살 수밖에 없는 일상적인 불편함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제4절 논의

폭염이 정부인증³⁰⁾을 받기 오래 전부터 이미 쪽방촌에서는 폭염과 한파의 재난적인 피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³¹⁾. 2020년에도 100개가 넘는 쪽방촌의 폭염에 관한 보도³²⁾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쪽방촌에 닥칠 폭염은 재난적 상황인 것처럼 비추어진다.

"얹아만 있어도 생지옥"...긴 장마에 찹질방된 쪽방촌·반지하
매일경제, 2020년 8월 14일

서울 소방재난본부, '폭염대책 119구조·구급 상황실' 24시간 운영
아시아경제, 2020년 06월 14일

코로나에 문 닫는 '무더위 쉼터'... 노인들 "여름 어떻게 버티란 말인가"
조선비즈, 2020년 6월 9일

하지만 이런 언론의 보도와는 다르게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쪽방촌의 주민들에게 폭염은 재난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다.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폭염 일수는 많아지고 쪽방의 물리적 온도는 이미 재난적인 수준임에도 쪽방촌 주민들은 폭염과 같은 극한기후 현상은 재난적인 상황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재난이란 무엇인가?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의 연구에 따르면 재난을 '자연적 혹은 인위적 원인으로 생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그 영향으로 인하여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단기간 동안 많은 피해를 주는 현상'으로 정의한다 (송창영 외, 2018). 재난을 연구하는 인류학자 Oliver-Smith (1999)는 일반적으로 재난은 보통 규칙에서 벗어난 예상불가능한, 불안정한, 사회적문화적 질서의 파괴적인 것으로 그려지는데 이런 접근은 재난을 반복적인 일상적인 것과 매일 일어나는 삶 (everyday realities)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개념화 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재난은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재난은 시작은 그 특정한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시작된 것이라는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는데 폭염은 2018년이 되어서야 자연재난에 포함되었다. 기후변화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의제가 된지 십 여년이 시간이 지난 2018년 여름 한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나가고 나서야 한국정부는 폭염을 공식적으로 자연재난으로 지정한 것이다.

31) 서울신문, 2001년01월19일, "노숙자들의 혹독한 겨울나기"

32) 비카인즈에서 "폭염" AND "쪽방"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2020년에 117개의 언론보도가 나온다.

Oliver-Smith (1999)의 주장처럼 쪽방촌에서의 재난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현지조사를 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주민인 강석호님 (남, 63세)과 폭염, 한파, 그리고 코로나-19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가 말했다.

(우리는) 일년 내내... 그냥 꾸준히 뭐 사계절 내내 괴로운 생활이야... 그러니까 일상이 재난이지. 매일이 그런데... 일상이 재난인데... (여름/겨울) 더 힘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태어나서부터 가난하게 살아와 정상적인 주거형태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여인숙, 고시원, 노숙인 시설에 살며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지금은 일도 하지 못해 수급을 받고 살고 있는 그에게는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는 매일 매일의 일상이 재난인 것이다. 쪽방에서의 생활을 10년 넘게 해온 그는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괴로운 현실 앞에서는 폭염과 한파가 초래하는 재난적인 상황마저도 일상적인 것으로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즉, 강석호님이 이야기 한 것처럼 폭염과 한파와 같은 현상이 재난이 아니라 쪽방촌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상의 재난의 일부인 것이다.

쪽방촌에서 일상의 재난에 가려져 비가시화 되어있는 폭염과 한파와 같은 재난을 들춰내기 위해 우리는 Rob Nixon (2011)의 느린 폭력이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느린 폭력이란 눈에 잘 안 보이는,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더디게 진행되는 폭력을 뜻하는 것으로 Nixon은 보팔 가스 누출사고, 체르노빌 원전사고, 허리케인 카트리나, 기후변화 등과 같은 환경관련 이슈들을 느린 폭력의 예로 든다. 느린 폭력은 공간과 시간에 국한되어 즉각 재앙적인 결과나 나타나기 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서서히 스며드는 비가시화된 폭력이다. 일반적으로 폭력은 아주 가시적이고 특정한 기간 동안 (time bound), 특정한 대상(body bound)에게 벌어지는 충격적인 사건(event focused)을 말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미디어의 자극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왔고 익숙해져갔고 이로 인해 느린 폭력은 더욱더 비가시화 되어 왔다. 특히나 빈자들에게는 장기간에 걸쳐 아주 서서히 느린 폭력이 스며들고 있고 이런 느린 폭력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쌓이고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어 재난이 되는 것이다.

이미 이십여년 넘게 매년 반복적으로 거의 같은 내용으로 쪽방촌의 폭염과 한파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꾸준한 문제제기에도 쪽방촌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 나아가 우리는 질문 해야 한다. 쪽방촌에 스며들고 있는 느린 폭력은 누구에게 비가시화 되어있는 것인가? 즉,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같이 재난을 ‘폭염’ ‘한파’와 같이 여름 혹은 겨울에만 벌어지는 극한기후현상으로만 문제시 하는 것과 그것이 빈곤의 문제와 결합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이를 어떻게 소비해 왔는가? 이런 측면에서 쪽방촌에 아직까지 대량의 인명피해가 나온 재난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Nixon의 느린폭력의 개념으로 살펴보면 쪽방촌에는 이미 폭염으로 인한 재난이 시작한 것은 아닐까?

제5장 폭염과 한파 사회복지의 역할

제1절 들어가며

최근 들어 사회복지학계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사회복지학회(American Academy of Social Work and Social Welfare)은 2016년 향후 사회복지가 집중해야 할 12대 과제 (Grand Challenges for Social Work) 중 하나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선정했고 환경문제를 다루는 사회복지 연구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Krings, Victor, Mathias, & Perron, 2018; Mason, Shires, Arwood, & Borst, 2017).

이에 사회복지학계 내에서도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고 이를 위한 전문가양성하기 위해 생태주의적 관점을 강조한 생태복지 (ecosocial work)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다 (Coates & Gray, 2012; Dominelli, 2015). 생태복지는 개발주의 사상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 사회복지제도를 탈피하고 자연환경의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인간의 복지 증진을 위한 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체도를 뜻한다 (Dominelli, 2015).

Ramsay & Boddy (2017)는 생태복지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정리 분석하고 생태복지로의 전환을 위해 5가지의 특성을 제시한다. 1) 사회복지 이론, 실천, 가치에 자연환경의 가치를 반영하고 인간중심주의 탈피 2) 영성적 지식과 원주민 지식으로부터 배움 3) 사회복지 교육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교육, 4) 비인간 생명에 대한 근본적 도구적 가치에 대한 재고 4) 비판생태주의적 사고 견지 5) 사회변화 참여

생태복지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소외계층과 소통하고 이들의 문제를 돕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야말로 앞으로 다가올 기후변화의 위기를 현장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주장한다 (Coates, 2004; Dominelli, 2015; Närhi & Matthies, 2018). 하지만 생태복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성취에 비해 아직까지 현장에서 생태주의적 사회복지가 어떤 형태로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Bexell, Sparks, Tejada, & Reckemmer, 2018; Molyneux, 2010; Ramsay

& Boddy,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Alston (2015)는 이미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은 알지 못하게 이미 생태문제를 다루는 복지사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제지회사들의 벌목으로 인한 산림 파괴는 이미 지역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사회복지학계는 이미 환경문제들에 대응을 하고 있는 현장으로부터 배움을 얻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생태복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김형준 & 한동우, 2010; 김형준 & 한동우, 2012; 조영훈, 2013, 은석, 2016), 국내 연구들 역시 복지국가와 생태주의와 같이 거시적인 이론적인 논의만 오가고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생태복지의 실천에 대한 논의는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는 쪽방촌의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폭염과 한파와 같은 기후 이상현상에 대비해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제2절 조사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앞서 의 자료수집 방법과 같이 현지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전국 쪽방상담소의 전 직원(7명)을 포함해 전국 10개의 쪽방상담소 중 9개의 쪽방상담소의 사회복지사 (18명)와 간호사 3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울역쪽방상담소>의 직원들은 2월부터 4월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 중 주요정보제공자였던 사회복지사 2명과는 추가로 인터뷰를 각각 1회씩 더 진행했다. 더 나아가 <서울역쪽방상담소>의 직원들과는 현지조사 기간 동안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연구 결과와 해석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또한 5월부터 6월까지 서울의 4개 쪽방상담소의 직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6월부터 8월까지 서울 외 지역(대전, 대구, 부산)의 쪽방상담소를 방문하여 기관투어 및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쪽방상담소의 전반적인 업무, 폭염/한파에 관한 현장에서의 경험과 이에 대한 현장의 대응과 제도, 현장의 개선점 등에 관해 반구조화 인터뷰(semi structured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질적연구 분석 프로그램인 Nvivo12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총 2차례에 걸쳐 코딩을 진행했다. 인터뷰 녹취록을 1차로 구조적 코딩 (structural coding)을 진행했다. 구조적 코딩은 질적 연구 자료의 범주화의 기법 중 하나로 방대한 자료를 최초로 범주화 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텍스트를 넓은 주제들과 키워드로 묶어 큰 조각들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구조적 코딩을 한 후 다시 한 번 녹취록과 코딩을 함께 꼼꼼히 정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다시 찾고 범주화를 해나가며 귀납적 코딩 (inductive coding)을 진행하여 또 다른 범주화를 찾아냈다. 이 과정에서 작성한 분석적 메모(analytical memo)와 코딩의 범주를 통틀어 테마 분석 (thematic analysis)를 수행하였다.

제3절 결과

1. "우리가 물품 나눔소인가요?"

2017년 서울시에서 진행한 쪽방상담소 기능 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쪽방상담소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상담 및 행정지원 2) 보건 의료지원 3) 기초생활지원 4) 자활 자립지원 5) 정서(여가)지원 6) 주거지원 7) 주거 안전 관리 8) 홍보 (세부 내용은 <표 5-3-1> 참고)

<표 5-3-1> 쪽방상담소 기능

구분	세 부 내 용
상담 및 행정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 주민등록복원, 기초생활수급신청 지원, 장애인 지원 등
보건 ·의료지원	민간 및 공공의 무료검진 연계, 병원동행 등 의료서비스 연계 등
기초생활지원 (생계 및 생활지원)	식품·생필품 지원(후원연계), 이미용 서비스 연계, 화장실·세탁실·목욕 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운영 등
자활·자립지원	구직알선 등 취업연계, 신용회복 지원 사업 등
정서지원 (여가지원)	명절 행사·송년회·신년회 등 마을잔치 진행, 영화·음악 등 공연 관람 프로그램, 나들이 프로그램, 체육활동 등
주거지원 사업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및 운영(임시주거지원 사업)
상담소별 특화사업	

출처: 이진우. 쪽방, 쪽방촌, 쪽방상담소. 서울: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2017.

인터뷰를 진행하며 첫 질문으로 각 쪽방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거의 모든 사회복지사들은 공통적으로 물품나눔

에 대한 업무 과중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물품 나눔은 쪽방상담소의 기초생활지원(생계 및 생활지원)에서 식품, 생필품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 물품 나눔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물품나눔으로 인해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으로 인해 다른 업무를 거의 못한다고 토로하기도 하였다.

취약계층들이 영구 임대 아파트나 아니면 이제 허름한 주택이라도 이렇게 있는데, 쪽방 자체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후원자님이 후원을 하고 싶다고 ... 아무래도 쪽방에는 이런 쪽에 더 후원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복지관보다는 후원품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또 반대로 딜레마가 생기는게 뭐냐 하면, 이 후원품을 적절히 대상자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온전히 직원들이 해야 되는 복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후원품 같은 것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이) 500명이 넘는데 500 인분을 딱 받으면. 이분들이 다 안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남아 있는 거는 일일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택배 배달부가 택배 배달을 가면은 (사람이) 집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 차례 하다 보면 이제 이분들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원품을 잘 관리하고 이분들한테 대상자도 적절히 배분하는 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소모가 되는데...

이런 거(후원 물품 나눔의 업무)를 기록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걸 모르죠 그 뭐가 힘들어 뭐가 힘들어 실질적으로 후원품에 계속 부족했다고 후원품을 관리하고 네 이걸 다시 이제 적절히 배분하고 그거 그거에 신경 쓰는게 엄청 많죠.

(사회복지사 A)

또한 그는 후원물품나눔이라는 사업에 투입되는 노동과 행정은 가시화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했다. 실제 본 연구자가 후원물품나눔을 위한 준비를 가까이서 관찰하고 사회복지사와 대화를 나누어본 결과 실제 물품을 나누어주는 과정은 후원자와의 물건 선정부터 일정을 조율해 나가야 하는 과정, 이에 대한 행정적 서류 준비(예, MOU 체결), 물건을 받고 박스를 창고에 옮기는 노동, 이 과정에서 주민봉사대와 연락 및 일정 조율, 행사 홍보, 배분과 배달을 하고, 결과보고를 하기까지 한 사회복지사의 말로 표현하면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즉, 이러다 보니 사회복지사 A의 말처럼 후원품 나눔 업무의 경우 다른 업무에 비해서 육체노동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업무이고 일반 사회복지관에 비해서 후원품이 더 많다 보니 직원들이 번아웃이 될 정도로 후원품의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다.

본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하며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역쪽방상담소>의 후원물품 목록을 받아 정리하여 본 결과 한 달 평균 후원품이 30건으로 나타났다. 후원품은 몇 만원 어치의 빵 몇 봉지와 같이 소규모에서부터 쌀 10포대 혹은 몇 키로나 나가는 식료품 키트 1000박스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후원품마다 많은 양의 업무과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건 이상의 후원물품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다.

<표 5-3-2> 쪽방상담소와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의 예산 대비 후원품 금액 비교

(단위: 원)

기관	직원	2019년 예산 (A)	2019년 후원품 금액 (B)	(B)/(A)
서울역 쪽방상담소	총 8명 : 사회복지사 6명, 간호사 2명	1,153,313,822	257,146,261	22.3%
용산노인 종합복지관	총 50명 사회복지사 21명, 간호사 2명, : 시니어 상담가 2명, 생활지원사 18명 등	5,715,921,819	272,152,286	4.8%

쪽방상담소라는 기관에 후원물품 나눔 업무가 과중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는 총 예산에서 후원품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는 것이다. 표는 <서울역쪽방상담소>와 같은 구내에 있는 같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의 직원수와 2019년 총 예산액과 이 중 후원품을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은 직원은 50명으로 서울역쪽방상담소의 8명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예산 역시 거의 5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후원품 금액은 거의 비슷하다. <서울역쪽방상담소>의 경우, 총 예산에 후원품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2.3%에 달했는데, 이는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의 4.8%에 비해 후원품 관련 업무가 훨씬 많은 것을 보여준다.



[그림 5-3-1] 쪽방상담소 물품 나눔 현장

후원품은 본 연구주제인 폭염과 한파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는 폭염과 한파에 대한 대책의 핵심 중 하나가 쪽방 주민들을 위한 생필품 및 후원품 연계 사업이기 때문이다³³⁾. 그러다 보니 후원품은 여름과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들어오는 물품들을 나눠주기 사실 바빠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사 B)

(후원품은) 계절적으로 여름하고 겨울에 몰려요... 그러다 보면 그때는 이렇게 확 들어오는 물건을 배분을 하고 그 후원품 재고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도 마찬가지로 후원품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키트박스가 들어오면은 500개에오 500개를 쌓을대가 없죠 쌓는다고 해도 인력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두건이 들어온 일이 아니니까 그런 걸 많이 힘든 게 있죠

(사회복지사 A)

사회복지사인지 그냥 배급소에서 배급하는 건지...우리 상담소가 이상하게 푸드뱅크가 돼버렸어요. 도시락 배달하고 방역해주고 이상한 쪽으로 지금 흘러가서 사실 조금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어요. ... 그럴거면 차라리 푸드뱅크 만들어서 사회복지사 필요없이 그냥 뭐 쪽 나눠줘 가지고 배분하는 게 훨씬 낫죠.

(사회복지사 C)

33) 서울시는 매년 여름철과 겨울철 노숙인과 쪽방주민 보호대책을 내놓는다. 본 연구자가 최근 5년간의 여름철 겨울철 보호대책 계획과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여름철 겨울철 보호대책은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된다. 1) 건강취약관리자 보호대책 2) 생필품 및 후원품 연계 3) 각 계절별 혹은 재난별 (예. 폭염, 한파, 코로나-19)대책

이처럼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후원품이 물리는 시기이고 이 시기에는 거의 후원물품으로 인해 다른 업무는 거의 못한다고 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후원물품이 핵심적인 업무 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다 보니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쪽방상담소가 “배급소” “푸드뱅크”가 되어버린 것 같다고 토로를 했다.

이제 경험적으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필요한 게 주민들이 정해져 있는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겨울이면 이불, 전기장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름에도 뭐 선풍기, 생수...

(사회복지사 A)

여름과 겨울에 후원물품이 많은 이유는 쪽방의 특성상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더위와 추위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여름과 겨울에 후원이 나오는 물품은 주로 식료품(반찬, 김치, 조리 음식 등)과 더위와 추위에 맞춰 냉방 난방 관련 용품을 주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모든 쪽방상담소에서 거의 대동소이했다.

실질적으로 폭염 한파 (대책이라고) 하면 천편일률적입니다. 쿨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천편일률적인 건데... 이걸 보여주려고요... 사실 또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도 주는 데서 흔히 말하는 이제 그림이 나와야지 미디어 나가게 되니까 가성비 최고의 아이템이 사실 선풍기거든요. 그래서 선풍기 위주로... 뭐 정부 차원에서는 크게 재해구호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지원이 힘드니까 뭐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불량 노후주택 좀 개선해가지고 단열 효과가 높아가지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뭐 여름은 시원하게 이게 실질적으로 차라리 뭐 허름하고 무너지는 건물이라도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놓으면 주민이 편한데... 이제 오히려 기후대책이라고 하지만 최종 검토해가지고 먹거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지원이 되고 있고 아니면은 선풍기 아니면 막 천편일률적으로 전기장판, 이불 같은 건데 거의 그런 것들이 되게 돼있고요

(사회복지사 I)

이처럼 쪽방상담소는 물품나누어 주는 곳이라는 인식이 존재할 정도로 물품 나눔은 핵심적이고 특히나 폭염 한파와 같은 대응에도 천편일률적으로 후원

물품나눔에 머무는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된 것처럼 쪽방촌의 주민들은 대부분 정부보조금으로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대상이기 때문에 후원물품을 통한 생계지원에 필요성이 존재한다. 가령, 서울시의 2019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50%이상의 주민들은 쪽방상담소에서 가장 보완해야할 서비스로 식품, 생필품 지원을 꼽고 있을 만큼 이에 대한 욕구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후원품의 업무의 대해서 현장에서는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2.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이 동네에 선풍기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들 한 두 대씩 다 있지.

(주민 A)

본 연구자는 4월의 하루 여름철에 가까워지면서 쪽방촌에도 더위가 서서히 찾아오기 시작해 선풍기를 구하려고 한다고 주민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 때 친하게 지낸 주민 한 분이 바로 “내가 줄게. 나 두 대 있어.” 라고 했고 또 다른 한 분은 “나도 냉풍기 안 쓰는 거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써”라고 했다.



[그림 5-3-2] 쪽방주민의 방에 쌓인 선풍기들과(왼쪽) 옥상에 버려진 선풍기들(오른쪽)

이렇게 나는 별 어려움 없이 선풍기와 냉풍기를 얻을 수 있었다. 선풍기를 주신 주민분은 두 대 중 나에게 작년엔 상담소에서 받은 선풍기를 건넸다. 오래된 것을 달라고 하자 그는 “올해 또 받으면 되니까”라고 하며 기어코 새 선풍기를 나에게 주었다. 나에게 새 선풍기를 준 주민의 말처럼 쪽방상담소에서는 매년 선풍기가 지급되었다. 이렇다 보니 매년 비교적 쓸 만한 선풍기도 새 걸로 바꾸거나 이를 외부에 파는 주민들도 있다³⁴⁾.

밀 빠진 독에 물 붓기하고 있어. (주거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을 거예요.

(사회복지사 D)

폭염 기후 변화 기상 이상 기후가 나타나지 않도록 화석 연료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쉽게 이야기해서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건물 내부 구조를 바꿔야 될 거잖아...혹서기 물품, 뭐 혹한기 물품 (나눠줄 수 있는 건) 다 짚봤어. 근데 이 틀 안에서는 더 이상 없다라는 거야.

(쿨 스카프) 이런 게 이제 온 거야. (내가 그랬지) “뭐냐 지금? 저거? 아우 난 진짜 내가 뚜껑 열린다 진짜. 뭐 하자는거냐? 그거를 그거 이제 뭐 냉방 용품이라고 어디서 지원하는 했다고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받았으니 나누는 짚야 되고... 뭐 하자는 거야? 갖다 버릴 수도 없어. 솔직히 내가 그런걸 나는 내 심정을 갖다 버려라 (하고 싶지) 그거 정말 주고 싶지 않다 그런거야. 쿨 매트, 쿨토시 다 매년 똑같은거니까... 처음에는 그것조차도 결핍이니까 좋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뭐지 이거 뭐냐 선풍기 (미니 선풍기) 이걸 그래서 내가 해서 예 진짜 그건 한국에 쓰는게 아니라 가서 동남아 짚라... 이게 미치겠는 거야. 수준이 그러니...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거야...

(사회복지사 E)

사회복지사 E는 사회복지사 중 한 명으로 그는 이제는 여름이면 오는 쿨 스카프 쿨 매트 이런 것들은 실용성이 거의 없어 낭비라서 버리고 싶다고 할만큼 후원물품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 D와 E의 말처럼 쪽방이라는 주거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매년 반복되게 여름과 겨울나기를 위한 후원물품을 나누어 주는 것은 밀 빠진 독에

34) 주민들이 후원품을 파는 것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사회복지사도 있었고 “생계에 도움이 되라고 주는 것인데 필요 없으면 파는 게 무슨 상관이야?”라며 주민들이 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세를 알아봐주는 사회복지사도 있었다.

물 붓기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만 되면 선풍기 및 냉풍기 등 각종 여름나기 후원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십년 넘게 반복되고 있고 여름에는 선풍기라는 공식으로 이미 자리 잡았다.

대부분 과도한 후원물품에 대해 비판적이면서 사회복지사 E는 “어쩔 수 없이 받았으니”라고 표현을 했을까? 다른 사회복지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왜 “후원의 고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인가?”

서울시, 에너지취약계층 1만가구에 3억원 상당 냉방물품 지원
동아일보, 2020년 6월 18일

서울 5개 지역 쪽방에 생수 삼계탕 전달
매일경제, 2020년 7월 16일

앞서 4장에서는 여름철 겨울철만 되면 쪽방촌 주민들이 폭염과 한파와 같은 재난적인 상황으로 인해 겨우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여름철, 겨울철, 추석, 설과 같은 명절에는 각종 대기업에서부터 소규모 기업까지 쪽방촌에서 진행한 물품 나눔 행사와 봉사활동과 같은 선행에 대한 보도와 사진 역시 큰 축을 차지한다. 한쪽에서는 계속 힘들게 살고 있는 쪽방촌 주민들의 삶이 전시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들을 위해 선행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전시되고 있는 것이다.

언론사나 기업들은 그냥 후원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자기네 기업 이미지를 마케팅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이 가장 쪽방이니까. 이제 뭐 폭염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죠. 사진찍고 언론사와가지고 뭐 인터뷰하고 영상 찍어가고 뭐 그렇죠.

(사회복지사 F)

사회복지사 F의 말처럼 쪽방이라는 공간이 빈곤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기 때문에 기업들은 홍보효과가 있는 쪽방촌의 후원물품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에) 00협회에서 쪽방하고 노숙인 대상으로 폭염 구호키트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10개 쪽방상담소에 뭘 넣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받았어요. 대략 의견이 나온 건 먹거리 박스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전달했는데 되돌아 온 답이 뭐였냐 하면 재해 폭염 구호키트로 먹거리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답이 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H)

에너지 폭염 관련돼 가지고 대책을 짜라고 얘기하면 저희들이 후원 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제안을 하죠 그러면 거부당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선풍기로) 돌아가죠

(사회복지사 I)

사회복지사 H는 올 여름 특정 후원처인 00협회에서 폭염에 관한 후원을 해주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전국의 쪽방상담소 직원들에게 필요한 물건에 대한 조사를 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웬만하면 냉방용품은 다 있기 때문에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식료품 박스를 전달하자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후원처에서는 식료품이 “여름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결국은 후원처의 구미에 맞는 냉방용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후원의 대상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 후원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에서 사회복지사들은 결국 후원물품을 제공해주는 후원자에 의견을 따라가고 이 과정에서 쪽방촌 주민들의 목소리는 사라지는 걸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 I도 H와 유사한 상황을 공유했는데 후원품 지원과 나눔이 중요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후원처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선풍기의 필요성이 떨어지지만 선풍기를 구매해서 나누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어쩔수 없이 선풍기를 받아 주민들에게 주며 필요하면 팔아서 현금으로 쓰라고 조언을 해주었다고 뒷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런 물품 나눔에 대 앞서 제4장에 등장한 김두선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가 역으로 질문을 던졌다.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 건데 그 물품을 주는 것이 과연 누구의 욕구냐? 받는 사람 욕구냐? 주는 사람 욕구냐? 뭔가 선행을 기업이 나 개인이나 어떤 선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의 대상으로써 쪽방이 필요한 거냐? 쪽방주민한테 필요한 걸 주는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쪽방상담소가 후원물품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사회복지사 G는 말했다.

(우리는) 주는 거 받아야 해요. 실적을 요구하는 거지 서울시는. 서울시도, 법인도, (우리가) 후원 물품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너희가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객관적인 수치가 나오는 거니까... (물품을 안주면)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정성평가가 안돼요. 이렇게 (물품을 나눠주는 것) 하면 성적표가 나오죠.”

(사회복지사 G)

폭염 뭘 얼마나 대처를 잘했냐 안했냐 하는 평가지표 그걸 바꿔야 해

(사회복지사 E)

그는 주민들 행정 지원, 주거 지원, 상담 등과 같은 다른 업무에 비해서 후원 물품은 가장 쉽게 절대적인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후원물품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³⁵⁾. 사회복지사 E 역시 그렇기 때문에 폭염이나 한파와 같은 대처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제4절 논의

주민들이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정작 맨날 물건 나와 가지고 물건이나 나눠 주고 그런 거 할 게 아니다. 여기 누구 아무개 있는데 그 사람 집에 가보니까 (힘들게 살고 있다더라) 그런 분들 좀 돌봐야 하는거 아니냐...

(사회복지사 C)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사회복지사는 폭염과 한파와 같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은 후원품으로 귀결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폭염과 한파에 대비하여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후원물품이 몰리는 시기로 각종 냉방, 온열기구, 구호키트 박스, 생활용품 등이 배분된다. 인터뷰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은 공통적으로 과도한 물품 나눔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³⁶⁾.

35) 하지만 동시에 사회복지사들 역시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후원물품에 집착하기도 한다.

36) 물품 나눔 자체에 대해 비판적이고 사례관리를 강조하는 사회복지사, 물품 나눔을 주민만남을 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는 사회복지사, 물품 나눔이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사회복지사까지

앞 4장에서는 쪽방주민들이 매일 겪어내고 있는 일상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집중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현재 쪽방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쪽방상담소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물품나눔과 같은 일회성/이벤트성 사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폭염 한파에 대한 대응은 후원품 나눔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쪽방상담소를 주민들일의 일상의 취약성을 “돌보는” 곳이 아니라 ‘물품 나눔소’ ‘푸드뱅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2020)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민들의 50%이상은 후원물품 나눔이 있거나 명절에만 쪽방상담소를 이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Dominelli (2015)는 생태복지의 기준 중 하나는 주거와 같은 물리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관계와 이로 인한 당사자들의 행동에 대해 탐구하고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사회복지사가 환경불평등 문제를 다룬다고 생태복지 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과정에 생태비판적인 시각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태비판적 시각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기존의 복지를 넘어 가부장적 자본주의 시스템과 이것이 만들어내는 관계들과 구조적 불평등을 계속해서 조명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쪽방촌에서 물품나눔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쪽방상담소의 사회복지사는 생태복지가 추구하는 가치와 강조하는 복지의 기능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주민들의 욕구가 있고 일정부분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후원물품 사업을 당장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성과를 위해 물품을 나누어주는 반작용적(reactive)인 복지(Banks, 2008)인 현재 쪽방상담소의 방향성에 대해 장기적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물품 나눔과 같은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공유되고 있음에도 왜 이런 사업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질문되어야 할 것이다. 즉, 우리는 물어야 한다. 왜 독에 밀이 빠져있는가? 왜 모두가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물을 부울 수밖에 없는가?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그 밀을 수리하고 보완해나갈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당사자인 쪽방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가?

현장에서 개인별로 물품 나눔 자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제 6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밀집거주하고 있는 쪽방촌의 주민들의 삶을 통해 한국의 기후 불평등 현상을 조명하고자 했다.

빈곤층은 탄소배출이 가장 낮음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입는다는 기후불평등의 측면에서 먼저 쪽방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봄으로 기후변화에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폭염/한파와 같은 재난이 아닌 취약계층인 쪽방촌 주민들이 폭염/한파와 같은 기후 재난을 일상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인 쪽방상담소에서 폭염/한파와 같은 기후 재난에 대한 역할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 거주하며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현지조사를 하며 쪽방상담소, 주민조직, 종교 단체 등 각종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주민들을 다양한 경로로 만나고 참여관찰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쌓은 주민들과의 관계를 통해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전국 10개의 쪽방 상담소 중 9개의 쪽방 상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쪽방주민들의 탄소발자국

쪽방촌 주민들의 탄소발자국을 측정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쪽방촌 주민들의 탄소발자국은 3.84톤으로 한국인 1인 평균에 비해서 3분에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드뱅크의 2016년 기준 한국인 1인 탄소발자국은 12.11톤에 비해 3분의 1 수준인 것이다. 쪽방주민들은 탄소발자국의 3가지 항목인 에너지 소비, 교통이용, 소비에서 모두 각 1인 가구의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쪽방주민들의 경제적 빈곤, 에너지 빈곤, 이동의 빈곤 상태를 살펴봄으로 단지 경제적 빈곤을 넘어 쪽방주민들이 겪는 빈곤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쪽방 주민들의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은 서울 1인 가구에 비해서 각각 3배, 2.4배, 1.8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모두 에너지 소비에 제한이 없는 저렴쪽방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임을 고려하면 다른 쪽방 주민들의 에너지 소비는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비항목을 통한 탄소발자국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식료품/외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46%이상으로 그들의 경제적 빈곤 상태를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으로 인한 탄소발자국의 차이는 거의 나지 않았으나 이를 통해 쪽방촌 주민들의 거의 이동하지 않고 거주지에만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는 단지 관계적인 측면을 넘어 이들이 사회적 배제상태임을 볼 수 있었다.

폭염에 대한 쪽방촌 주민들의 인식과 경험

쪽방촌 주민들의 폭염을 일상에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 폭염이 쪽방촌 주민들에게 재난적인 위기일 것이라는 외부의 인식과는 달리 쪽방촌 주민들은 폭염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고 일상적인 골칫거리 정도로 받아드리고 있었다. 여름철 서울시의 실내 권고 온도보다 평균 5도 이상 높은 쪽방에 살면서도 주민들이 크게 개의치 않는 이유는 많은 이들이 거리노숙의 경험이 있거나 과거 경험했던 주거환경이 쪽방과 별반 다르지 않아 상대적으로 이런 취약한 환경에 익숙해져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며 이에 익숙해지고 적응을 하고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체념을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을 빗대어 한 주민은 “일상이 재난”이라는 표현을 썼다. 즉, 일상이 재난이기에 여름, 겨울 등의 더위와 추위 그 자체가 재난이 아니라 그는 일상의 재난에 일부일 뿐인 것이다.

우리는 Rob Nixon (2011)의 느린 폭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쪽방촌의 일상의 재난에 가려져 비가시화 되어있는 폭염과 한파와 같은 재난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 가시화되어 있지 않는 빈자들에게 이루어지는 느린 폭력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리는 재난이라는 현상 자체 보다는 매일 벌어지는 일상의 취약성(everyday vulnerability)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Walters & Gaillard, 2014). 즉, 재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총체적인 현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환경에서 지내고 있고, 그들은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와 같은 그들의 일상의 일상에서의 취약성을 주목해해야 할 것이다.

쪽방촌의 기후재난에 대한 사회복지의 역할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에서도 생태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다. 생태복지의 개발주의 사상에 의존하고 있

는 기존 사회복지제도를 탈피하고 자연환경의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인간의 복지 증진을 위한 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비판 생태주의적 관점을 견지한다 (Dominelli, 2015). 이에 본 연구는 쪽방촌의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폭염과 한파와 같은 기후 이상현상에 대비해 사회복지의 역할은 탐구하여 생태복지의 가능성을 탐색해보았다.

연구 결과 쪽방상담소에서 폭염과 한파 기간 동안 쪽방촌의 주민들을 위한 지원은 후원물품이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름에는 선풍기와 같은 냉방용품, 겨울에는 이불과 같은 난방관련 물품 혹은 식료품이 담긴 재난구호키트를 후원받아 주민들에게 전달해주는 것이 현재 사회복지가 폭염과 한파와 같은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방식인 것이다. 과도한 후원품으로 인해 고유의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고 토로하고 매년 같은 물품이 지급되고 있는 등과 같이 자원의 낭비에도 불구하고 후원품으로 업무를 평가받는 시스템에서 쪽방상담소는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취약한 주거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노력없이 후원물품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형태의 복지는 일시적인 대응책일뿐 생태복지가 추구하는 가치와는 멀어보였다. 더 나아가 후원품 위주의 일회성 복지는 앞서 이야기한 쪽방촌 주민들의 일상의 취약성에 주목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이에 현재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원품 위주의 사업 구조의 원인에 대한 문제를 조명하고 이에 대한 자원을 재배치해야 할 것이다.

나가며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기후약당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넷제로(Net Zero) 선언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하지만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해나가겠다는 구호와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것이라는 숫자와 예측만 넘쳐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없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외치지만 해외에 석탄발전소 수출을 추진하고 국내에서도 신규석탄발전소가 계속 건립하는 등 실제로는 그린 뉴딜을 경제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재 정부의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계획에는 기후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재하다는 점 역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국과 영국 노동당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쟁점화된 그린뉴딜의 핵심적인 원칙중 하나

는 바로 ‘기후정의’와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이다. 하지만 한국의 그린뉴딜에는 기후위기에 책임이 큰 집단이 전환 과정에서 더 큰 부담을 지어야 한다는 원칙이 빠져있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최빈층인 쪽방촌 주민들이 에너지 이용에 대한 권리마저 박탈당한 상태일뿐만 아니라 폭염과 한파와 같은 기후변화가 초래한 재난을 이미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드리고 살만큼 취약한 환경에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탄소발자국이 대한민국 1인 평균의 1/3이 수준이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과연 탄소중립을 위한 책임과 부담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즉,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그린뉴딜 정책은 기후정의를 원칙으로 해야하며 불평등 해소를 하나의 목표로 삼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

구체적으로 쪽방촌 주민들의 삶에 연관이 있는 것은 바로 주택정책일 것이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Daniel Cohen은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의 저탄소 공공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역설한다³⁷⁾. 그는 민간 영역의 개발을 통한 주거 공급해결 정책을 통해서서는 적정 주거 공급량을 늘릴 수 없고 결과적으로 주거 불평등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주거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과감히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십년 동안 사람이 살만한 아름답고 탄소중립 공공주택 천만가구를 공급하자고 제안한다. 저탄소 공공주택은 그 당위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기술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2019년부터 쪽방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 1월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에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현재 대전 동구와 부산 동구까지 쪽방촌의 공공개발 계획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2020년 11월 18일에 열린 “전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에서 정부 측 인사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그들은 여전히 ‘사업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쪽방촌의 공공개발은 ‘공공’보다는 ‘개발’에 초점이 더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에 빈곤층을 위한 주거정책은 그린뉴딜의 영역 안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탄소중립사회의 정의로운 측면에서도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공공주택의 확대가 주거권 실현이라는 인권의 측면을 넘어 기후변화의 책임이라는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다.

37) Daniel Cohen, Jacobin, “A Green New Deal For Housing”

참 고 문 헌

- 권지성 (2008). 쪽방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국사회복지학, 60(4), 131-156.
- 권지성, & 한가영. (2008). 쪽방 거주 노인의 생활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베테스다 연못가의 일상.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2(1), 63-84.
- 김소연 외 (2010). 폭염이 서울시 쪽방촌 독거노인에게 미치는 건강영향 조사. 서울: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김규민, 김희윤, 안병옥, 이은선, 김소연, 김영민 (2016). 폭염이 서울시 쪽방촌 독거노인에게 미치는 건강영향 조사 II. 서울: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김형준, & 한동우. (2010). 사회복지의 대안적 이론체계로서의 사회생태주의. 상황과 복지, 29, 91-123.
- 김형준, & 한동우. (2012). 사회생태주의적 관점에서의 한국 복지국가담론 비판과 대안. 비판사회정책, (36), 39-74.
- 손정인, 김정숙, 김슬기, & 조승화 (2013) 2013 건강권에 관한 서울시민회의 : 서울시민, 건강권을 선언하다! 쪽방주민의 삶을 중심으로. 서울:서울연구원
- 최은영, 정진선, 이원호, 강지영, 김기태, 이채윤, 김두겸, 이간훈, & 구형모, (2018). 비주택 주거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서울:국가인권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
- 이소정. (2006). 판자촌에서 쪽방까지-우리나라 빈곤층 주거지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9, 167-208.
- 이현주, & 안기덕. (2013). 쪽방에 거주하는 여성 독거노인의 삶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3(2), 33-62.
- 이현주, & 엄명용. (2013).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노인의 쪽방촌 거주 경험과 의미. 한국가족복지학, 39, 143-176.
- 이태진 김태완 김문길 김현경 정원오 주영수 임정기 송아영 이기재 임덕영 우선희 정희선 & 김선. (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 임승자 (2019). 남성 독거노인의 생애사를 통해 본 사회적고립. 한국노년학, 39(2), 325-345.

- 은석. (2016). 생태주의와 복지국가는 결합할 수 있는가?: 자본 포섭형 복지국가에서
성찰적 공동체형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하여. *비판사회정책*, (53), 213-245.
- 정여주, & 김정득. (2013). 쪽방지역에 거주하는 남성 노인의 삶의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접근. *사회과학연구*, 24(2), 295-322.
- 정택진 (2020). 쪽방촌의 사회적 삶: 서울시 동자동 쪽방촌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논문,
- 조문영 외 (2019). 우리는 가난을 어떻게 외면해왔는가. 서울: 21세기북스
- 조영훈. (2013). 생태주의의 도전과 복지국가의 변화. *사회복지정책*, 40(3), 1-24.
- 하성규. (2007). 불량주거 실태와 정책과제: 쪽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4(1),
122-168.
- 송창영 (2012) 은평구의 재난관리 역량강화 등을 위한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연구.
한국재난안전기술원.
- 허소영. (2010). 쪽방지역에 홀로 사는 남성 노인의 삶의 경험. *한국노년학*, 30(1),
241-260.
- 홍성철, 이재범, 문경정, 차준석, 마영일, 김승연, 정휘철, 최영은, 이동근, 홍지형, 최영은
(2014).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서울:
국립환경과학원
- 황세인. (2015). 쪽방거주자의 삶에 대한 질적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16, 405-438.
- Alston, M. (2015). Social work, climate change and global cooperation. *International
Social Work*, 58(3), 355-363. <https://doi.org/10.1177/0020872814556824>
- American Public Transportation Association (n.d.). Public Transportation Reduces
Greenhouse Gases and Conserves Energy. Retrieved from
https://www.apta.com/wp-content/uploads/Resources/resources/reportsandpublications/Documents/greenhouse_brochure.pdf
- Banks, S. (2008). The social professions and social policy: Proactive or reactive?.
European Journal of Social Work, 2(3), 327-339.
<https://doi.org/10.1080/13691459908412199>

- Berkeley Earth (2019). GlobalTemperature Report for 2018. Retrieved from <http://berkeleyearth.org/2018-temperatures/>
- Bernard, R. (2011). *Research Methods in Anthropology: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Aliamira Press, UK.
- Bexell, S. M., Decker Sparks, J.L., Tejada, J., & Rechkemmer, A. (2018). An analysis of inclusion gaps insustainable development themes: Findings from a review of recent social workliterature. *International social work*, 62(2), 864-876. <https://doi.org/10.1177/0020872818755860>
- Burck, J., Hagen, U., Marten, F., Höhne, N., & Bals, C. (2019). *The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2019*.
- Coates,J. (2004). *Ecology and social work: Toward a new paradigm*. Black Point,Canada: Fernwood Publishing Co.
- Coates,J., & Gray, M. (2012). The environment and social work: An overview andintrodu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1(3), 230-238. <https://doi.org/10.1111/j.1468-2397.2011.00851.x>
- Cohen,C.I. (1999). Aging and homelessness. *Gerontologist*, 39(1), 5-14.<https://doi.org/10.1093/geront/39.1.5>.
- Cusack,L., Loon, A. V., Kralik, D., Arbon, P., & Gilbert, S. (2013). Extreme weather-relatedhealth needs of people who are homeless. *Australian Journal of PrimaryHealth*, 19(3), 250. <https://doi.org/10.1071/py12048>
- Dominelli, L. (2015). *Greensocial work: From environmental crises to environmental justice*. Malden,MA: Polity.
- Ellaway, A., Macintyre, S., & Kearns, A. (2001). Perceptions of Place and Health in Socially Contrasting Neighbourhoods. *Urban Studies*, 38(12), 2299-2316. <https://doi.org/10.1080/00420980120087171>
- Elliot, S.J., Cole, D.C., Krueger, P., Voorberg, N., & Wakefield, S. (1999). The power of perception: health risk attributed to air pollution in an urban industrial neighbourhood, *Risk Analysis*, 19(4), 621-634. <https://doi:10.1023/a:1007029518897>.

- Fuller, S. (2007) Configuring climate responsibility in the city: carbon footprints and climate justice in Hong Kong. *AREA*, 49(4), 519–525.
<https://doi.org/10.1111/area.12341>
- Hass, B. (2018, August 9). South Korean heatwave causes record deaths. *The Guardian*
- Human Rights Council (2019). Climatechange and poverty: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extreme poverty andhuman rights. Retrieved from
https://srpovertyorg.files.wordpress.com/2019/06/unsr-poverty-climate-change-a_hrc_41_39.pdf
- IPCC (2018). Global Warmingof 1.5 °C. Retrieved from <https://www.ipcc.ch/sr15/>
- Kennedy, E.H., Krahn, H., & Krogman, N.T. (2013). Are we counting what counts? A closer look at environmental concern, pro-environmental behaviour, and carbon footprint, *Local Environment*, 20(2),220–236.
<https://doi.org/10.1080/13549839.2013.837039>
- Kim, S. (2011). Public Perceptions of Climate Change and Support for Climate Policies in Asia: Evidence from Recent Polls.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70(2), 319–331. doi:10.1017/S0021911811000064
- King, K. E. (2015). Chicago residents’ perceptions of air quality: objective pollution, the built environment, and neighborhood stigma theory. *Populationand Environment*, 37(1). <https://doi.org/10.1007/s11111-014-0228-x>
- Krings, A., Victor, B. G.,Mathias, J., & Perron, B. E. (2018). Environmental social work in thedisciplinary literature, 1991-2015. *International Social Work*.<https://doi.org/10.1177/0020872818788397>
- Mason, L. R., Shires, M. K.,Arwood, C., & Borst, A. (2017). Social work research and global environmentalchange. *Journal of the Society for Social Work and Research*, 8(4),645–672. <https://doi.org/10.1086/694789>
- Mohai et al. (2009). Environmental justice, *Annual Review of Environment and Resources*, 34, 405–430.
<https://doi.org/10.1146/annurev-environ-082508-094348>

- Molyneux, R. (2010). The practical realities of ecosocial work: A review of the literature. *CriticalSocial Work*, 11(2), 61-69.
- Mulrow, J., Machaj, K., Deanes, J., & Derrible, S. (2018). The state of carbon footprint calculators: Anevaluation of calculator design and user interaction features. *SustainableProduction and Consumption*. 18, 33-40.
- Närhi, K., & Matthies, A.-L.(2018). The ecosocial approach in social work as a framework for structuralsocial work. *International social work*, 61(4), 490-502. <https://doi.org/10.1177/0020872816644663>
- Nixon, R. (2011). *Slow violence and the environmentalism of the poo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Oliver-Smith (1999). "What Is A Disaster": Anthropological perspective on a persistent question. In: *The Angry Earth*. Ed by Oliver-Smith and Susanna Hoffman
- Oxfam(2015). *Extreme Carbon Inequality: Why the Paris climate deal must put thepoorest, lowest emitting and most vulnerable people first*. Retrieved from <https://www.oxfam.org/en/research/extreme-carbon-inequality>
- Padgett, D. (2017).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research*. Los Angeles, CA: Sage.
- Pandey, D., Agrawal, M., & Pandey, J. S. (2011). Carbon footprint: current methods of estimation.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assessment*, 178(1-4), 135-160. <https://doi.org/10.1007/s10661-010-1678-y>
- Paterson, M., & Stripple, J. (2010). My Space: Governing Individuals' Carbon Emission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8(2), 341-362. <https://doi.org/10.1068/d4109>
- Petts, J., & Brooks, C. (2006). Expert Conceptualisations of the Role of Lay Knowledge in Environmental Decisionmaking: challenges for Deliberative Democracy.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38(6), 1045-1059. <https://doi.org/10.1068/a37373>
- Pendrey,C., Carey, M., & Stanley, J.R. (2013). Impacts of extreme weather on thehealth and well-being of people who are homeless. *Austrialian Journal*

of Primary Health, 20(1), <https://doi.org/10.1071/PY13136>

- Ramin, B., & Svoboda, T. (2009). Health of the homeless and climate change. *Journal of urban health: bulletin of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86(4), 654-664. <https://doi.org/10.1007/s11524-009-9354-7>
- Ramsay S., & Boddy J. (2017). Environmental social work: A concept analysis.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47(1), 68-86. <https://doi.org/10.1093/bjsw/bcw078>
- Red Cross (2016). Climate change, housing and homelessness. Retrieved from <https://www.nccarf.edu.au/sites/default/files/Forum%20report%20on%20homelessness%20and%20climate%20change%20final.pdf>
- Saldaña, J. (2016). *The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 Los Angeles, CA: Sage.
- Shonkoff, S. B., Morello-Frosch, R., Pastor, M., & Sadd, J. (2009). Minding the climate gap: Environmental health and equity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in California. *Environmental Justice*, 2(4), 173-177. <https://doi.org/10.1089/env.2009.0030>
- Shonkoff, S., Morello-Frosch, R., Pastor, M., & Sadd, J. (2012). The climate gap: Environmental health and equity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and mitigation policies in California—A review of the literature. *Climatic Change*, 109, 485-503. <https://doi.org/10.1007/s10584-011-0310-7>
- Taylor, D.E. (2014). *The State of Diversity in Environmental Organizations*
-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2019).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adequate housing as a component of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and on the right to non-discrimination in this context. Retrieved from <https://www.ohchr.org/EN/Issues/Housing/Pages/CountryVisits.aspx>
- U. S. Global Research Program (2019). *The Climate Report: National Climate Assessment—Impacts, Risks, and Adaptation in the United States*. Melville House Publishing.
- Walters, V. & Gaillard, J.C. (2014). Disaster risk at the margins: Homelessness, vulnerability and hazard. *Habitat International*, 44, 211-219.

<https://doi.org/10.1016/j.habitatint.2014.06.006>

Wen, N., Hawkey, L., & Cacioppo, J.T. (2006). Objective and perceived neighborhood environment, individual SES and psychosocial factors, and self-rated health: An analysis of older adults in Cook County, Illinois, *Social Science & Medicine*, 63(10):2575-90,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06.06.025>

Wiedmann, T. and Minx, J. (2008) A Definition of Carbon Footprint. *Ecological Economics Research Trends*, 1, 1-11.

Yen, I. H., Yelin, E. H., Katz, P., Eisner, M. D., & Blanc, P. D. (2006). Perceived Neighborhood Problems and Quality of Life, Physical Functioning,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Adults with Asthma.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6(5), 873-879. <https://doi.org/10.2105/AJPH.2004.059253>

Yoder, K. (2020). *Footprint Fantasy*

안 내 문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재)숲과나눔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